

PRSR STD
U.S. Postage
PAID
Elk Grove VLG. IL
Permit #1320



재미서울대동창회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377 Haynes St., Chicago, IL
Tel. (773)363-0964
e-mail : info@snuuaa.org
website : http://www.snuuaa.org

발행인 : 李龍洛
편집위원회총무 : 李龍洛
편집인 : 김정수

월간 시험판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 A

2001년 6월 29일



재미서울대동창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평의원회 제10차 정기회의가 6월 9, 10일 시카고 교외의 옥브룩 힐스호텔에서 열렸다. 평의원들이 차기 집행부 선출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호 편집위원 촬영>

산적인 안전 능률처리에 감명 차기 회장단 만장일치로 선출

제10차 정기 평의원회 성료

전 미주 서울대 동창회의 동문들의 의사를 수렴 집약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평의원회(The SNUAAUS Delegates' Congress)의 제10차 정기 평의원회가 지난 6월 9일-10일 양일 간에 걸쳐 Oak Brook Hills Hotel(Hinsdale, IL)에서 총원 66명 중, 대의원 34명(본인 28명, 대리인 6명이 참석하고), 투표권 위임자 12명 등으로 총 46명의 출석대의원으로

6기 예산안 심의, 지난 6월 1일부로 개정된 회칙에 따른 회원들의 기부금의 세금 면세해택절차, 평의원수 증가, 지역동창회 분담금의 증가(보고 지원) 지역동창회와 미주동창회 본부의 조직통합에 관하여 열띤 토론이 있었다("지역동창회"는 미주동창회의 "지부"인가? 샌디에고지역 동창회의 탈퇴의사 처리문제 등).

평의원회는 첫날인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점심도 없이 도시락으로 대처하면서 오인석 회장의 사회로 열띤 토론을 거쳐 "우정과 신뢰"에 바탕한 실용적인 시행방안을 의결하여, 동문회원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써의 진지함과 그 효율성의 과시하였다. "한국국회에서는 한달이 걸릴 일"을 7시간 반만에 처리함으로써(김재순 총동창회장, 전 국회의장의 논평) 전미주 7천명이 참가하는 재미동창회의 산적인 안전을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녁만찬은 제6기 재미총동창회를 불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시카고지역 동창회의 초청으로 저녁 6시부터 10시 45분까지 참석하신 평의원들과 본국 순방단 여러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번호의 내용들>

- 재미서울대동창회보 시카고 발간에 부쳐2면
- The Great Lakes Journal3-12면
- 총동창회에 바람3면
- 나의 고궁 박물관4면
- 북한 화폐와 남한 화폐의 교환비율6면
- The Christian Origin of Science8면
- 동문회원 동정 ...13-15면
- 동문독자 설문조사 ..16면

2면에 계속

알차고 격조 있어 동문들이 기다리며 읽는 재미 동창회보의 원고 및 자료 투고요령과 편집원칙

동창회보는 한국의 지성인들이 재 미주 동문들의 전체의 노력으로써 만들어지는, 쓰고, 생각하며 토론하는 場입니다.

본 편집위원회는 보다 유용하고 알찬 내용이 담긴 회보를 만들기 위하여 그 편집 목표를 "알차고 격조있어 동문들이 매달 기다리며 읽는 회보"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목표는 여러 동문들의 정성어린 투고로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인적, 물적, 시간적인 제약 아래 제작되는 만큼, 모든 동문여러분들께서 취재기자가 되어서 크고 작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자료공급원으로서 도와주시는 만큼, 우리 동창회보 수준이 올라 갈 것입니다.

각 전문분야에서 활약하시는 동문 여러분, "당신의 분야에서 초보적인 사항들은 타분야에 종사하는 일반동문들에게는 유용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에서 접하시는 크고 작은, 흥미 있고 유용한 자료들(article, news snippet, photo, picture, joke..)을 본 편집위원회로 훌쩍 e-mail 하거나 전송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편집자는 여러 동문들이 읽으시는 유용한 지면을 구성하고, 그 자료원을 제공하신 동문을 기명하고자

합니다.

1. 원칙적으로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자발적으로 투고하신 원고로 이루어집니다.

2. 또한 본보 편집위원회는, 특별기획기사 연재 계획에 따라 전문가 동문들에게 회보집필자로서 초대장을 보내어 해당분야의 학술연구 논문이나 학술연구와 관련된 글을 실어, 일반 상업언론과는 다른 깊이 있는 지면을 구성하고자 합니다(여러 동문독자들의 특별기획기사에 관한 주제 및 초정될 전문 집필자의 추천에 관한 제안을 환영합니다).

3. 회보에 수록된 글들에 대하여, 전체 동문들은 읽으신 소감(독후소감, 찬성과 반대 의견 등)을 편집자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달 회보에 그 의견을 기명 게재하여, 회보를 보다 수준 높은 동문들이 쓰고, 생각하며 상호 토론하는 論壇으로 만들고자합니다.

4. 지역동창회에 바랍니다: 개별동문의 동정 및 지역동창회의 활동계획과 결과에 대하여 내실있는 보도자료를 보내 주시면 전 미주 동문들이 읽는 참신한 새 소식통을 만들고자 합니다(개별동문의 활동 및 동정, 길흥사, 자녀의 자랑 및 소개).

<투고 요령>

◇주제 및 내용: 동문들이 쓰고 싶은 어떤 주제나 장르

- 시, 소설, 산문
- 전문분야 연구논문, 평론, 서평
- 시사문제 평론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 게재기사나 글에 대한 독자의 평가 및 의견

-각종 자료원이나 취재원에 대한 정보제공

◇원고 길이: 제한 없음

◇투고요령(편집 편의 우선 순위)

▶e-mail with attachment(한글 또는 외국어)

e-mail 주소 : info@snuuaa.org

▶fax : 원고 (육필원고 혹은 타자된 원고) 및 편집자료 제안물(사진, 글, 독자의 견)

fax) 630-238-8139

▶우송 : SNUAAUS

377 Haynes Street,
Woodale, IL 60191

편집자 직통전화 : (630)238-8140

◇원고마감일: 제한 없음(월간지임으로 다음달에 게재될 원고의 마감 일은 매월 25일임).

8월호 원고 마감일은 7월 25일임.

<편집원칙>

◇편집자는 저자와 함께 상의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사용하여 발전시키고 참신한 용어 개발하여, 이를 고양하는 場이 되고자 합니다.(초고는 자유롭게 집필하십시오.)

◇모든 원고는 기명기사로 하고, 저자 저작소유권을 존중합니다.

◇편집에 있어 편집자는 투고된 초고를 존중하여, 게재 전 저자와의 상의를 거쳐 수준 높은 내용을 만들고자 하고, 그 판권은 저자의 소유임을 명시합니다.

편집위원회는 동문들의 분주하신 가운데도 시간 내어 투고하신 옥고 및 자료들로 "The Great Lakes Journal - 江湖諸賢인 동문들이 구성하는 集賢殿"을 재미동창회보의 속에서 만들고자 합니다.

f
LG 2
.545
89-92
20
c.1
CT

7천명 동문이 함께 만드는 소식지

재미 동창회보 시카고 발간에 부쳐

이 운 모 <61년 농과대학졸업 · 일리노이주 인권국 수석연구기획위원>



다. 우리의 속담에 “종이 한 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다.

이주 현실적인 예를 들어 미주 동창회원 명부에 있는 회원의 3분의 1이 매년 회보 비용을 부담한다면, 유료 구독자가 현재의 두 배로 늘어 회보발간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위에서 펼쳐본 동창회보 도약에 관한 기대도, 오로지 회원들이 회보를 통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입력(input)함으로써, 즉 동문들의 취미생활, 문학과 예술활동 등 개인 주변의 일상사와, 지역 동문들의 소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전문성있는 정보에 이르는 제보와 기고 등이 실린다면, 그 종잇장을 함께 들어 올려 만천하에 펼쳐 보이는 일의 시원이다.

7천명 동문 독자들이 각기 자원하여 정보원의 발굴자, 집필자, 회보 제작의 자문이라는 의식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신문 팀과 막힘 없이 교류할 때, 동창회보는 기대하는 바를 달성하게 되며 또 새로운 기대를 도출하여 원대한 비전(vision)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결과는 모든 회원들이 회보에 대해, 각자가 주인이라는 긍지와 자아 발전의 한 수단이라는 실천적 관심으로 공조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다. 우리 신문 팀은 그러한 결과를 일방적으로 미리 약속하거나 다짐할 능력을 갖지는 못했다.

다만 이 모든 구상들은 동문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여로써만이 가능할 것임을 조망하며 기대함으로써 새 출발을 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재미 총동창회 제6기 집행부가 7월부터 시카고에서 출발하면서 동창회보를 시카고에서 발간하게 되었다.

그간 동창회보를 창간하고 끊이는 달 없이 제작하여 7천여 동문들에게 배포하며 또한 동창회보의 자립 기반을 다지기 위해 쉬임 없이 노력하신 선임 회장단들과 실무자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낸다.

이제 총동창회장단의 새 임기를 시카고에서 시작함에 따라 동창회보를 이곳에 이식하여 계속 발간해야 하는 집행부는 회보의 도약을 다짐하는 한편, 불안 심정으로 이 책무를 맡는다.

재미 동창회보는 이제까지 몇 가지로 대별되는 기능을 지니었다고 하겠다. 첫째는 총동창회의 공지사항을 전달하며 자원을 동원하여 조직으로서 총동창회의 기틀을 다지는데 뒷받침하는 기능이다.

둘째는 각 지역의 동창회의 활동을 기록하고 소개함으로써 지역 동창회의 활성을 뒷받침하며 지역 동창들 사이에 교류를 도모하는 기능이다.

셋째는 미주 각지어나 본국에 있는 동문들의 소식을 나눔으로써 동문간에 유대를 이어가는 기능이다.

넷째는 동문회원들의 문필 또는 전문적 기고를 게재하여 지식적인 공감대를 연결하고 넓히는 기능과,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정보와 지식을 많은 독자들이 공유하게 하는 기능이다.

새 집행부가 회보 발간을 위해 구성한 새 신문 팀은, 동창회보의 시카고 이식이 일단 정착되면 다음 단계의 발전 구상을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를 기대한다.

우선 이 회보에 대한 동창들의 인식과 기대, 그리고 동창들이 이 매체를 발전시키고 또 각자의 취향과 재능에 맞게 이용하는 데 어느 만큼 관심이나 참여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재미 동문들의 종합적인 “얼굴”과 잠재력을 파악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재미 동창들이 직업면에서 무엇을 성취했는가는 과거 총동창회 명부 작성과 회보를 위한 자료수집에서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

이제는 동창들이 각자 삶의 절정기에서 자녀들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계획과 잠재력이 동창 상호간, 조직으로서의 동창회, 모교, 모국, 나아가서 전지구촌사회(global society)에 어떠한 영향력을 추가할 수 있을지의 그 가능성을 추정하여 우리회보는 유용한 정보의 결정체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회원독자들의 기대와 잠재력을 파악한 후 회보의 기능과 지면 구성, 그리고 운영전략 등에 반영하게 될 것이다.

첫째, 우리 신문 팀은 회원들의 전문성 기고 발굴과 게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늘어가기를 기대한다.

특히 전문성 기사를 발굴하려는 목적의 하나는 산업화에 성공했으나 국민의 의식과 사회의 제도적 기능이 이를 따르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모국에 재미 동문들이 기

여할 것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母國이 빈곤국에서 개발된 국가로 30년 사이에 도약하는데는 미주 출신 과학기술자들의 공로가 있었으므로 가능했다.

그러나 그 급격한 경제 발전에 <사회개발>이 같은 속도로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모국은 다시 고통 속에 있다.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조명하고 해답을 제시하는데 한줄기 기능을 재미 동창들이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회보가 그 매개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은 전문 지식을 쌓은 수다한 재미 동창들의 삶의 절정을 충일 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미주 동창회보는 모교의 약진적인 변모에 기여할 것도 우리는 기대해 본다.

한국의 최우수 전문교육기관이라고 많은 동문들이 자부하는 모교는 세계의 우수한 대학들의 대열에서 멀리 뒤떨어져 있다. 그 원인은 재원의 뒷받침보다도 대학경영 전문가가 아닌 경선 투표로 선출된 학자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경영하며 일관된 정책 지식이 결여된 정부의 통제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 방면에도 재미동창들이 신선한 충격을 가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으며 그 매개 역할을 동창회보가 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우리 재미 1세 동문들의 지식과 경험과 무형적 자산은 차세대, 즉 우리의 자녀들과 모국에서 유학 오는 후배들에 의해 공유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회생물학적 순리이다.

차세대의 잠재력, 그들의 포부와 1세들에게 거는 기대, 그들이 갈망하면서 스스로 완결하는데 겪는 어려움 등을 1세대 동문들의 교류의 장에 함께 등장시킴으로써 두 세대는 상호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기대에서 우리 신문 팀은 후배들

과 자녀들의 개인적인 성취를 소개하고 그들이 성공적으로 가정을 이루어 복지를 누리며 재미 한인사회와 모국의 장래에도 우리 세대를 이어 기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과 결실을 서울대 동문들의 세계 안에 한계 밖으로도 연장해야 할 것이다. 동문들간의 결속만 다짐하며 배타적 엘리트즘으로 빠지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인재들을 키운 모교의 설립취지를 망각하는 일이다. 또한 미주에 어떤 사연으로 정착했는지 우리와 괴리를 같이해 온 우리 세대의 일반 교민과도 공동 분담하고 그 결과도 공동 향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우리 신문 팀은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희망과 열정을 말하는 “우리 신문 팀”이란, 앞서 책임을 맡았던 선배 실무진에 비해 유별난 특공분대가 결코 아니다. 단지 앞선 분들의 경험과 실적을 연장하려는 책임을 느끼는 소수일 뿐이다.

이 소수인 신문 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겨울 잔디밭의 불처럼 그 스스로 써 만든 오래 탈 수 없는 불씨일 뿐이다. 이 공동 목적의식에 감응하여 개인의 지식과 재능, 혹은 물질적이거나 무형적인 자원의 한 부분을 나누어 투입하겠다는 동문들의 수에 비례해서 이 기대하는 열매의 빛과 향취와 맛과 영양가는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헌신과 자원투입을 특정인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아니다.

<수퍼 히어로>는 어느 때나 환영받는 존재이지만 누구에게든 타의적인 압박감을 가해 독자를 만드는 것은 동문회 조직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개인들의 희생적 부담은 지속되기 어려우며 또한 독자가일수 없는 평범한 회원 일반의 동참의식을 저해할 위험도 있

격조 높은 동문 음악회에 피로 말끔

1면 <참관기>서 계속

이 만찬에는 김재순 총동창회본부회장, 임광수 수석부회장, 한두진, 송두호 부회장, 이세진 사무총장, 안홍섭 동창회보 편집장, 서울대학생부처장인 김기선 교수, 서울대학신문주간인 배영수 교수, 서울대학원장인 민상기 교수 등과 관악후원회 이사님들이 참석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으나 모교는 바꿀 수 없으며”, “동서양 고전교육을 강조하는 The University of Chicago의 교육사상”을 서울대에 접목하자는 요지의 김재순 회장의 만찬연설(연설문 전문 6월호 게재)이 있었다.

이어 민상기 대학원장으로 부터,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교육의 개혁 논의가 안고있는 제반문제들에 관하여 (1)기본학문의 위기, (2)관련 학문간의 협력연구, (3)타 대학간의 발전균형문제에 따른 정부예산의

집중지원의 한계 문제, (4)짧은 교육행정 담당자의 임기(2년)에 따른 일관성 있는 발전방안의 추진의 한계 등에 관한, 현황 설명이 있었다.

이어 두 동문 음악도, 이소정(피아노 전공, 음대 84년도 입학), 이수정(성악전공, 음대 88년도 입학)이 주관하고 출연한 공연이 1시간 여 계속되어, 그 “수정”같은 화음이 하루종일 설 새없이 진행된 긴 회의로 지친 동문들을 침묵 속에서 명상하게 하는 즐겁고 격조 있는 음악회가 되었다. 두 동문들의 노고에 전 청중들의 열광적인 박수와 앵크로가 있었다. 권승립 동문(미네소타 평의원)은 음악회 주관자가 출제한 퀴즈, 푸치니의 “아버지와 내가 사랑의 눈을 뜰때”를 마추는 음악실력을 과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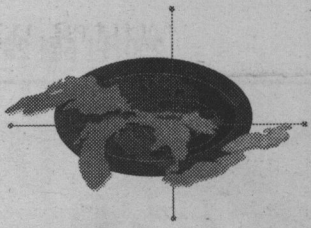
참가하신 평의원들의 부인들께서는 따로 시카고지역의 관광일정을 가졌고, 둘째날인 10일에는 대학원장 초청의 조찬 후에 참석하신 평위원과 본부 순방단, 시카고지역

동문들이 참가한 친선 골프대회가 있었다 (수상자명단 및 기록은 추후 게재)

6기 집행부 임원으로, 이용락 차기 회장의 “shadow cabinet”이 추천되어 평의원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회장 : 이용락 (공과대학 53년 졸업)
사무총장 : 구경희 (의과대학 65년 졸업)
총무국장 : 김정주 (문리대 64년 졸업)
재무국장 : 김현옥 (문리대 71년 졸업)
섭의국장 : 장기남 (문리대 62년 졸업)
출판국장 : 정 호 (공과대학 66년 졸업)
또 회보 편집인으로 김재수 동문(문리대 69년 입학)이 소개되었다.

이번 시카고에 오신 평위원들로 부터, 10차 정기 평의원회의 및 기타 행사를 순조롭게 진행되게 후원한 시카고 동창회와, 차기 집행부의 사업계획, NY으로부터 이관되어 제작될 동창회보 발간 등의 총동창회 사업에 대한 추진준비과정과 진행에 대하여 전 시카고 동문들의 노력과 협력에 경의를 표하였다. 이에 차기 집행부는 이번 행사에 돌심양면으로 지원하신 여러 동문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돌심>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에 바람

이 기억 <47년 문리대 졸업>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사무국을 New York에서 Chicago로 이전하는 기회에 이 사업의 획기적인 개혁과 아울러 활성화를 기대 요망한다.

총동창회는 창립 이래 본래의 목적달성과 발전을 위하여 회장과 임원들이 수년간 수고하여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을 대성 치하한다.

총동창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그 후생복지의 증진을 도모 추진하는 동시에 모교발전에 협조 기여하도록 전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충분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며, 그 목적을 위하여 회장 및 임원과 회원이 대동 단결해서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동창회는 모교 발전계획을 방관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년 전 조완규 전 총장이 "동창에게 고한다"는 논설을 동창회보에 발표하여 모교 발전에 대한 동창들의 적극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최주호 전 회장도, 동창회보에 발표한 일본 동경대학 방문시찰기에서 모교와 동경대학을 비교하여 각성이 필요할

을 역설한 바 있다.

모교가 개교한지 반세기가 넘었으니 이제 세계 일류대학의 서열에 들어야 마땅할 것이다. 지금 모교에서는 세계 40개 대학 중의 하나가 될 것을 지향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참으로 가상할 만한 목표라고 생각된다. 물론 미국만 해도 큰 대학이 40개가 될 것이며, 서구나 일본 중국 등의 일류대학을 합하면 40번째 권에 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짐작된다.

이는 5개대 한국이 개발선진 7대국회의 회원국이 될 것을 목표로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한 것과 흡사한 느낌이다.

지난 3월 20일자 동아일보는 社論인 "서울대학의 위기, 교육의 위기"에서 모교의 실패한 일면을 기술한 바 있었다. 즉 모교의 발전계획에 이상이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대학 교수 채용의 선호조건이 영어로 강의 능력이 있고, 또 장애 외국인 교수 다수를 채용하여 모교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한다는 것이다.

또 이는 외국인 학생 유치의 방안의 일환인 듯 하다. 그러나 영어 사용은 진리습득



전달의 한 방법일 뿐이며, 한국어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우수한 자국 학생을 양성하는 것이 모교의 교육 목적의 근본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일부 지방대학에서는 학생 정원을 채우기 위하여 외국학생을 유치한다는데, 외국인 교수채용의 경우에도, 그 소기의 목적달성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BK 21案을 추진할 때, 당시 교육부 장관이, 그 후에 자기 모교의 대학에 귀임하여 총장이 다시 되었을 때, 학생들로부터 배척받았다는 웃지 못할 사건을 직시해야

목차

나의 고궁박물관	4면
회지 시카고발간에 즈음하여	4면
인간복제와 생명공학	5면
북한화폐-남한화폐 교환비율	6면
교육자의 책임	7면
컴퓨터가 이사한 날	7면
The Christian Origin of Science	8면

할 것이다. 교육부는, 신학기에 "선진국의 교육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적용 실시한다고 하는데, 나는 가장 선진국의 하나인 미국에도 합의가 표출된 가장 적합한 교육 모델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대학은 학문을 가르치고 자유롭게 진리 탐구하는 곳이다. 미국 대학에서 외치는 학문의 자유(Academic Freedom)와 종신교수(Tenure)제도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는, 여러 동문들이 적극 참여하여 토론할 의무와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서울대학교 총 동창회가 새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동창회보와 동창회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동문들이 서로 토론하고 서로 조언할 수 있는 기회와 문화를 함양할 수 있도록 총 동창회 본부가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망한다.

평통 간담회에서 얻은 소감

金奉炫 <55년 법과대학 졸업·변호사>

필자는 지난 10년간 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자문이었으며 지난 8월 24일에 열리는 제9기 자문위원들의 통일문제 간담회에 "지도급 초청인사"로 참석을 했다.

그 기회에 한국에서 오신 연사들의 좋은 설명도 듣고 많은 자료와 의견을 얻었다.

국내에 있는 동포에 못지 않게 통일을 염원하는 것이 해외동포의 심정이라는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물론 연사들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교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도 큰 목적이 있지만 해외에 다녀가면서 교포들의 의견과 견해를 수렴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해외동포들이 보는 통일문제에 관한 관점은 국내의 의견들과 다를 수도 있다. 국내 동포들이 보는 시야와 다를 수도 있는 우리의 인식(Perception)을 참작하는 것은 헛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인식과 의견이 반듯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국내시정을 모르고 말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해외에서 보는 눈이 이렇다는 것은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남북간담회에 이어서 몇 가지 견의말씀을 했다. 한국에서는 정부에서만 통일의지와 필요성을 강요하지 말고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일어나는 통일에 대한 자

발적인 운동은 아직도 볼 수가 없는 것 같다. 통일은 정부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특허품만도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통일은 전 국민의 의지로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민 각층에서 자발적으로 통일을 지지하고 준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지금 여론조사들에는 국민의 80% 특히 부녀 층에서 단일한 생활에 만족해서 통일의 필요성을 회피하는 기운이 있다고 한다. 통일을 이루는 데는 반듯이 희생이 동반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통일의지를 촉진하고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시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민간차원에서 밑에서부터 통일에 관한 국민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민간인이 스스로 동참하고 추진하는 태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견의를 했다.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없느냐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4명이나 있으며, 장관이나 차관을 역임한 분도 수백 명이나 되며, 이외에도 저명한 은퇴한 정치인, 존경받는 지도인사가 많이 있다.

이 분들이 솔선하여 개인의 정치적 야심 없이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이 운동에 앞장선다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에 대한 답변이 한국국민은 미국하고



달리 민간차원의 운동에 대한 전통이 전혀 없어서 생각조차 할 수도 없다는 것이며, 그에 대해서 인사로나마 최소한 고려하겠다는지 하는 태도조차 조금도 안 보였다.

즉 해외동포들의 의견을 참작해 보겠다는 성의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것이다.

그분 말씀이, "정부에서 그렇게 시켜도 안 하는데 한국사람이 누가 자진해서 민간운동을 하겠습니까"였다. 필자는 생각하기를 한국사람들이 안 하겠다는 것은 정부에서 억지로 시키니까 안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과거 일제시대와 군사정권하에서 억눌림을 받아 정부의 요구에 적극 협력하는 전통이 별로 없는 듯 하다.

그러나 민간운동으로 나가며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88 올림픽 때에도 민간운동과 협력이 크게 효력을 본 전례도 있다.

나중에 회의장 밖에서 필자는 추가 질문을 하면서, "이러한 민간운동 분위기조성

을 위해서 언론을 활용해서 여론에 호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분은이에 대하여 답변하기를, "정부에서 언론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라는 것이었다. 즉 그 건의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정부에서 언제부터 언론에 손을 댄 것인가"라고, 묻고 싶다.

차라리 정부는 민간주도의 통일운동을 권장하고 언론을 이에 대한 홍보활동에 참여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어떤 저명인사를 청와대 오찬에 초대해서 많은 언론인들 앞에서 국민운동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중히 부탁하며, 언론계에도 이것을 크게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위촉된 분은 자신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여론을 봐서라도 열심히 일할 것이다. "정부가 왜 언론을 활용 못하니까, 언제부터...?" 언론매체를 활용함은 탄압이나 통제와는 다른 것이다.

오늘날은 세계화시대이며 또 東西가 하나가 되는 Internet 시대에 미국의 전통이 이렇고 한국의 전통이 이래서, 일이 안 된다는 단정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겠는가?

이분들이 한국 정부를 대변하여 미국에 올 때, 정부의 입장과 문제만 설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해외교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방문의 목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통일자문"이라는 "간담회"는 아무 의의가 없는 것이며, 이는 소위 말하는 일방통행로(one way street) 밖에는 안 되는 것이라고 보는 바이다.

나의 고궁 박물관 - 나의 책 출판 Odyssey -



김 일 훈 <57년 의과대학 졸업·의사>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이듯이 꼭 필요해야만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이기성(利己性)이다. 더구나 필요가 자기의 목전의 이해득실과 관계될 경우 배우려는 욕망은 다급해진다. 나는 컴퓨터(다음 PC라 약함)에 의한 워드프로세서를 다급하게 습득해야만 될 일이 생겼다. 어느 지방 신문에서 칼럼 연재를 시작할 때 조건이 처음 한 달은 봐줄 테니 그 사이 한글 타이프에 익숙해서 원고를 꼭 전자우편(e-mail)로 보내달라는 요구였다. 비용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기고자에게 타자부담을 맡기자는 의도다. 컴퓨터 만지면서 기껏 한국어에 편지 쓸 때 한글타자를 서툴게 써왔는데 이제 칼럼 원고도 아-메일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다는 ‘공갈’에 모처럼의 황금기회를 포기할 수도 없어, 노력한 것이 이전 내 자신 서툰 비서 정도의 한글 타자수가 돼버렸다. 자음과 모음으로 잘 배합된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장차 워드프로세서와 PC시대에 대비해서 창안한 듯, 한글타자는 배우기 쉽고 사용에 아주 편리하여 영어타자보다 못할 것 없다. 나중에 배운 일본글타자의 복잡한 것과 비교할 때 세종대왕의 고마움은 더욱 절실해진다.

우리는 참으로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겠다. 10년 전에 썼던 복사기(copy machine), 팩스, 워드프로세서 기구들은 내버리긴 아깝다고 해서 창고 한구석에 진열해 버렸으며, 이전 PC 하나로 모든 것

이 척척 해결되어가니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PC의 기본 3대 기둥이라 할 주소록과 전자우편, 인터넷 이용, 그리고 워드프로세서 사용을 만끽한다지만, 다른 분야의 사용엔 나는 아직도 어둡고 더구나 기술부문에 초보자 실력도 없다. 컴퓨터 학습용 책이나 'Teach yourself' CD-ROM세트 등은 형식상 갖추고있을 뿐 손낼 시간이 아깝고, 여가 있으면 필요한 타이프나 인터넷만 돌고 놀아 지니 말이다. 그래서 PC 실력으로 따지면 내가하는 분야는 대학원 학생쯤 된다고 하겠으나 그 외는 유치원생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겠으며, 그런대로 나로서는 시간을 유용하게 쓴다고 자부한다. 또 의문이 있을 때면 옆치 불구하고 이웃이나 LA친구 등 컴퓨터 공짜 선생을 전화로 괴롭힌다.

아무튼 필요에 의해서 한글 타자수가 되고, 전자우편이나 편집자 측에서도 일하기 쉬워, 글 내용이 좀 부족해도 편집상 받아준다든 인상을 받을 때도 있다.

한번은 동창회신문(서울대) 편집인에게 “전자로 원고 보내는 동문이 몇이나 됩니까?” 하고 참고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 “김선배 한 분뿐입니다”라는 답은 너무나 의외였다. 서울의 의학신문에 연재 글(미국 의료문제)을 허락해준 이유중의 하나도 나

의 전자지고 덕분일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있다. ‘이슈투데이’에는 거의 매주 1건씩 전자지고하여 그 결과 지난 1년간 60여 편의 칼럼이 내 PC에 수록되었다.

이 글을 밑천으로 작년 가을부터 책 계획을 하여 파일을 찾아 정리를 해가며 철자법과 띄어쓰기 그리고 글다듬기에 유의 해가면서 책 출판준비를 해나갔다. 책에 실을 글 내용에 따라 그룹을 짜서 6부로 분류하고, 글 제목을 수정하거나 부제목을 달기도 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내자니, 아내의 말을 빌리자면 갑자기 부지런한 사람이 돼버렸다. 그 결과 이번에 책이 발간되어 “생활속의 역사탐구”란 이름으로 나의 “제2 칼럼 집”이 나오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 자신 책의 저자일 뿐 아니라 PC로 책 만드는 과정에서 편집자였고, 출판사에서 한 일은 페이지 숫자 맞추는 일과 책 모양새 가다듬는 정도에 불과했다. 출판사에서 나의 조잡한 표현을 고치려들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교정할 때는 일일이 사전에 내 허가 받고서하라고 부탁했다니 전혀 손대지 않게 되어, 결국 책은 편집과 인쇄(타자)면에서도 순수한 내 개인의 작품이 되어버린 셈이다. 5년전 첫 번째 만들 때 원고지에 악필로 써서 지우고 다시 쓰며, 교정해서 찢고 다시 쓰고 거기 에다 펜으로 2고 3고를 거치면서 작은 분량은 팩스로 긴 것은 속달우편으로 출판사를 왕래하던 시기를 돌이키면 격세(隔世)의 감이 있다. 첫 번째 책 출판이 20세기의 것이라면, 지금 내가 1인3역의 PC로 책을 완성한 이 시점은 틀림없는 21세기이다.

한 생애에 우리는 3개 문명을 거쳤으니 이만 하면 옛 사람에 비해 10배 이상 장수하는 것이라고 만족해 본다. 자랄 때의 기차여행 문명을 거쳐, 성인기의 비행기시대에 주유천하(周遊天下)하다가, 이제 21세기 전자우주 시대에 손가락 하나 까딱(click)함으로써 순간 순간마다 강중강중 세계를 무대로 뛰어 다니는 격이니 말이다. 그러하오니 70평생에 2-3세기를 살아온 느낌이라, 언제 죽어도 한이 없겠으나 좋은 세상 만났기로서 더 오래 살고 싶은 나만의 욕심이 아닐 것이다.

이상과 같이 내가 손수 만든 나의 새책이 순조롭게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책 편집의 절정기에 내 PC는 임진왜란에 비할만한 환란을 겪었으니, 바이러스의 침략을 받았던 것이다. 하루 밤은 컴퓨터와 대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예기치 못한 이변이 생겼다. 들어온 아-메일을 무심코 열면서 바이러스 감염이 되 버린 것이다. 태평세월 속에서 ‘유비무환’ 한다는 선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임진왜란을 겪은 사태와 같이, 바이러스 운운하는 말에 무관심했던 결과 내 인생의 일대 불행을 낳게 할 뻔했다. 이 대란을 맞는 순간 내가 울음을 터뜨렸다고 훗날 아내가 흥보지만, 물론 과장된 표현이다.

나는 정신 바짝 차려 비상을 걸어(국가 총동원하는 격으로) 급한 대로 외국원조를 청하자니 시간이 밤 12시라 누구도 부를 수 없던 차에, LA 시간은 아직 10시이니 컴

퓨터에 밝은 그곳 친구에게 전화 연락했다. 그의 말은 컴퓨터가 파괴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우선 저장한 파일을 찾아보고 손상 안된 것 있으면 빨리 디스켓으로 피난시키라는 충고다. 천만다행으로 한글 파일은 바이러스가 갖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을 가까스로 면한 기쁨은 한량없었다. 그래도 공포에 질린 나는 바이러스 감염 후유증을 염려한 나머지 한글 파일을 디스켓에 옮기는 작업, 그것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같은 파일을 2번이나 되풀이해서 하나하나 옮기는 밤일을 끝내고 나니, 동창이 밝아왔다. 나의 국보 제1호의 아간철수작업은 이렇게 수행되고 성공리에 끝났다.

날이 밝아지자 나의 컴퓨터 기술고문관인 젊은 친구 김군(데이비드 김)에게 연락했다. 그가 와서 2-3분간 기계를 만지작거리더니 “원상 회복됐습니다”고 말한다. 감염된 조그만 것 하나를 제거해버렸으니 아무 일 없다고 한다. 김군 말에 의하면 바이러스에도 3종류가 있으며 쉽게 말해서 살인강도와 큰 도둑 그리고 좀도둑의 3가지인데, 불행 중 다행으로 나의 피해는 좀도둑이 저지른 경미한 손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위기의식에 쫓긴 나는 한밤중 수다를 떨었던 것이니, 남이 들으면 웃을 일이지만, 나 자신에겐 애지중지하던 나의 보물이 국가의 보물만큼이나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로서는 건방지게도 위기직전의 나의 보물소개(寶物疏開)작업을 중일(中日)전쟁직전 중국 '고궁박물관'의 문물소개(文物疏開)계획과 비유해보았다.

1937년 7월7일 베이징 근교에서 일어난 중국과 일본군간의 총격전을 시발점으로 중일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장개석 중국정부는 일본의 노골적인 중국침략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내다보고서 전면전쟁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전투준비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적 계획이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역사적 보물들을 안전지대로 소개시키는 일이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고궁박물관의 보물을 16,655상자 속에 완전무결하게 포장하여, 육로와 양자강을 거쳐 폭격을 모면할 수 있는 중경(重慶)근처의 깊숙한 오지(奧地)에 운반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보물들 19,555상자(중경서 갖고 온 2,900상자 포함)는 안순(安順) 낙산(樂山) 아미산(峨眉山)의 3곳에 분산수용해서 보전했으며, 그중 아미산에 가장 많이수용했었다.

2차전이 끝나자 이 보물들은 마땅히 베이징의 고궁박물관에 복귀해야 했으나 이번에는 중국내전으로 인해서, 장개석정부에서는 보물을 농칠세라 그 알짜를 방향을 바꾸어 대만으로 옮겨갔으며 그곳에 간 문물은 2,927상자에 23만8,951점이라 기록돼있다.

5면에 계속

동창회보 시카고 발간에 즈음하여

서 승 환 <61년 치과대학 졸업·치과의사>

同窓會紙를 시카고에서 發刊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生覺합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新印刷術을 구비한 中央日報社에서 이를 출판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美洲版 同窓會紙가 百科辭典의 한 면을 보는 듯이 훌륭한 紙面을 구성하여, 우리 同窓 貴先 先輩님들과 後輩님들의 학문과 知識과 智慧를 發揮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寶貨를 아낌없이 살려서 이 偉大한 美國發展에 이바지하며 앞으로 다가오는 새 千年 時代에 한 알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는 役割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으로 지난날을 생각하면 가슴 뿌듯하게 하는 것은, 고아에게 한 나라를 물려줘서 강력한 四方나라에 바치지 아니하고 六百年이란 기간동안 한 王朝를 유지하여 온 경우는 이 地球歷史上 由來가 없는 것이죠. 애 위대한 우리 조상들이 아니겠어요.

행여라도 조상들을 흠집 잡지 말고 후손들에게 위대한 “道”와 글을 배워서 행동으로 옮기고 마음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敎訓(“賢明君子 體而行之”)을 새기면서, 우리 모두 새 千年의 主人이 됩시다.

여기에 李朝 明宗朝에 쓰여서 四百五



十年 뒤에 發見된 우리 祖上의 豫言의 一片을 紹介하면서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鷄鳴聲

三鳥之聲 들어온다 잠깨어라 役事하세. 鳥鳴聲數數聲에 일할 生覺 걱정이다. 玄武鳥初鳴時에 鳥頭白이 未容髮이요 靑龍馬再鳴하니 江山留支 壯觀이다. 朱雀之鳥三次鳴에 昏衡長夜開東來라 鷄鳴無時未久開東 日竿三되었네 夢覺時라 인민들이 農事일이 不失하여야하니 日語 저저 田耕하고 英學하게 播種하고 地學하세 除草하여 霜雪時에 秋收하소 馬枋兒문 나오신다 蔑視말고 잘 모셔라.

인간복제와 생명공학

강수상 <53년 의대졸업 · Rush Medical School 유전학 교수>

복제라는 어휘는 예술품 가구 출판물 같은 것을 원래의 작품과 똑 같이 모방하여 만든다는 뜻인데 언제부터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신문이나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문화계 종교계 심지어는 학계에서까지 이 용어를 생명체의 생식과 관계되는 "클론(CLONE)"의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이리다가는 인간클론을 인간복제로 사전에서까지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될 것 같다.

"클론"이라는 어휘는 동물이나 식물이 원종의 특수세포에서 무성생식의 과정으로 생긴 원종과 동일한 동물이나 식물을 뜻한다. 요즘에는 그 뜻이 더 한정되어 미수정란의 세포핵을 다른 체세포핵으로 교환해서 생긴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명체를 클론이라고 정의를 하고있다. 클론의 어원은 희랍어로 "가지"인데, 가지는 나무의 동지에서 뻗어난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클론은 생명체에서만 사용되는 어휘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점에서 "생명윤리 자문위원회"에서까지 만약 생명체의 비생명체

의 구분이 없이 쓰고 있는 "복제"라는 어휘를 클론의 뜻으로 쓰게 된다면 이것이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말을 하는 밑바닥에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의 문제가 깔려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간 클론"의 문제를 생명윤리 위원회는 "예기치 않은 재앙을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그 연구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성에 의한 정상생식과 인간클론의 차이의 문제를 과학, 윤리, 종교적인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는데, 현재 수용되고 있는 인위적인 생식과정도 심도 있게 참작한 견해가 나와야 할 것 같다. 인간클론을 반대하는 근거가, 첫째로, "생식과정에 인위적 조작이 윤리적으로 얼마만큼 허용이 되는가" 하는 문제와, 둘째는 "이 과정을 거쳐 생긴 생명체와 그 원종의 유전적 동일성과 인격적 동일성의 수용한계를 윤리적으로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에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성합의 과정이 없는 인공수정은 물론이고 인체 밖에서 정자와 난

세포를 수정시키고 배양하는 시험관내 수정(IVF) 난세포 벽을 통과 못 하는 정자를 세포 속으로 주입하여 수정시키는 난세포내 정자 주입법(ICSD)같은 조작 과정과, 클론의 조작 과정이 왜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할 것 같다.

"클론"에서 생기는 생명체와, 클론에서 난세포의 핵 대신 주입된 체세포핵의 임자와의 생물학적 동일성에 대한 문제도, 간단하게 결론 지을 문제가 아니다.

새로 생겨나는 생명체가 세포핵이 가진 유전자의 영향을 제일 크게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체세포 유전자를 관리하는 난세포와 그 속에 들어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의 역할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세포핵 유전자의 동일성만 강조되어야 할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알고싶다. 동일성을 따진다면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에 비하면 클론의 경우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더구나 클론에서 보는 두 생명체의 출생 일시의 큰 차이는 유전적 역할만큼이나 중

요한 것이다. 세포핵 유전자가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은 사람의 체세포의 클론과, "젊은 생명체"와의 동일성을 찾는다는 생각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한 개체는 생물학적으로 유전자와 환경의 공동 산물이라는 것을 깊이 음미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런 점을 생각할수록 복제라는 어휘는 피해야 할 것 같다.

참고로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는 말과 글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한문 문화권 속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클론을 중국에서는 "克隆"으로 쓰고 "크롱"이라고 발음하며 일본에서는 영어발음을 그대로 "クローン"이라고 쓰고 있다. 마땅한 어휘가 찾아지지 않으면 원어와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게 쓰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한다.

끝으로 "유전 공학"이나 "생명 공학"이라는 어휘도 쓰되 경우를 가려서 써야 할 것 같다. "유전학", "세포학", "분자 생물학"과 같은 분야가 있는데, 다루는 과제도 분명치 않다.

또한 별로 통용되지도 않는 공학의 한 분야의 과제로 클론을 다루는 것에는 생각할 여운을 남긴다. 실제로 클론의 연구를 주도한 학자들은 대부분 세포생물학이나 세포생리해부학 출신이다.

클론을 다루는 분야를 공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생물학을 공학으로 바꾸어야만 첨단 생명과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4면 '고궁박물관'서 계속

대만수도 대학(臺北) 교외에 화려한 '고궁 박물관건물'이 건설되어 여기에 5천년 중국의 알짜문물이 잘 진열되어, 1964년 11월 12일 손문선생 100년 탄생일을 기해서 개관되었다(물론 대부분의 나머지 보물들은 베이징으로 되돌아가서 옛날보다 못한 내용이지만 다시 전시되었으며, 입구의 관 "故宮博物院"이라 쓴 중국의 석화 곽말약(郭沫若)선생의 명필은 본래 대로다).

대만에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곳 박물관건물 후면은 바위산(岩山)의 거대한 동굴에 이어져있어 어떠한 공습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보호되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전쟁을 치르면서, 또는 장차 올지도 모를 내전에 대비해서 생명 못 지 않게 문물을 보호하려는 중국인의 역사적 사명감을 엿볼 수가 있다.

일본서도 문물과 기록보존의 철저함은 유명하다. 그런데 한국의 문물은 외침으로 많이 불타고 외국에 도난 당한 불행도 있지만, 배불송유(排佛崇儒)와 위정척사(衛正斥邪) 자기와 다른 주장은 무조건 배격하는 주자학사상)라는 배타사상으로 반대파의 문물파괴로 인한 분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일본에 산재해있는 조선종(鐘)과 옛 조선의 벽화를 찾아 책으로 엮은 강건영(姜健榮, 일본 오사카의 내과의)박사는 얼마 전 시카고 방문했을 때 말하기를 "일본은 훗날 죄가 있지만, 파괴됐을지도 모를 우리문화재를 잘 보존한 공도 있다"고 했을 정도다.

바이러스 홍역을 치른 나는 앞으로 또 다가올지도 모를 병자호란 같은 외적(바이러스)의 침략에서 내 PC 파일을 철저히 보호하고자, 남에게 보잘것없지만 "나의 고궁 박물관"이기도 한 PC 파일 1부씩을 수다스럽게 3곳에 저장하였다.

손가락 클릭 몇 번 되풀이해서 1부는 큰 침실(아내 방)에 아내 전용으로 설치해둔

PC(나의 전번 PC)에 저장했으며, 그곳을 내 마음속으로 "강화도 사고(史庫)"라 부른다.

내 서재의 PC는 내 파일의 본고장인지라 이를 서울의 "춘추관(春秋館)"이라 불러본다. 지금 서울과 강화도는 육교로 연결되어 내가 침실에 드나드는 만큼 왕래가 편리하다고 듣고있다. 여기에 더하여 만일 내 집(서울과 경기도)에 이변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1부는 나의 PC 기술고문인 데이비드 김의 PC에 저장했으며, 그곳을 나는 김군의 고향(경북)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태백산(太白山)사고"라 부른다.

이렇듯 나의 피해망상적인 문물보존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조선이조실록"보존을 위한 고사(故事)를 모방한 처사였다.

조선조의 가장 귀한 문물 "이조실록"은 초기에 두벌을 만들어 서울의 춘추관과 충주(忠州)의 사고(史庫)에 봉안했다. 그 후 (1445년) 세종대왕께서는 두벌만 가지고 서는 마음이 놓이지 아니함으로 다시 2부를 등사하여 전주(全州)와 성주(星州)에 새로 사고를 설치하고 각각 1부씩 간직하게 했으니, 모두 4곳에 봉안해서 관리했다. 그러나 선조 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3곳의 실록은 모두 병화에 타버리고 전주의 실록만 남게되었다.

전주에서는 용감한 두 선비에 의해 사고의 모든 서적을 전화가 미치지 못한 정음(井邑)의 내장산(內藏山)에 운반하여 다음 해 정부에 인계할 때까지 지켰던 것이다. 전쟁 중 선조는 내장산의 실록을 여러 곳을 거쳐 평북 영변의 묘향산에 옮겼다가 왜란이 평정된 후 (1599년) 나라살림이 비참한데도 불구하고 실록출판사업을 일으켰다.

그 결과 다섯 부의 실록이 성립되어 5곳(춘추관, 강화도, 경북의 태백산, 강원도의 오대산, 평북 영변의 묘향산)에 사고를 건축하고 1부씩 봉안했으며, 다음실록이 나올 때마다 그곳에 추가되었다.

여기서 묘향산 실록은 훗날 후금(여진족)

을 의식하여, 전복의 적상산으로 옮겨졌다. 그런 다음 병자호란을 비롯한 여러 난리를 치르고 일본침략과 6.25를 겪으면서 많이 소실되어, 현재 남아있는 실록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있는 강화도의 정족산(鼎足山)과 경북의 태백산 원본 2개 뿐이라 한다. 그러하자 내가 따로 저장시킨 두 곳, 강화도(아내의 PC)와 태백산(데이비드 김 PC)은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명칭이라 하겠다.

책이 나왔으니 강화도나 태백산은 물론 나의 춘추관도 불일 끝난 곳이 됐지만, 아직 미련이 남아 문물을 잃어지 않고 그대로 담고 있다. 만일 재판이나 개정판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이유보다는 "나의 고궁 박물관"속의 나의 소중한 문물이라는 애착 때문에 그대로 간직하고있는 것이다.

현재 대학명예교수이며 국회의원경력도 있는 서울의 한 친구는 책 내용을 평가하기를 "많은 지식을 나열했는데 도대체 그 사료(史料), 재료(材料)와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었나?"고 묻는다.

나는 건방지게도 한마디로 "나의 고궁 박물관"에서 얻었다고 얼버무려버린다. 구태여 말한다면 나의 박물관은 내 머리속에 있으며, 정보의 출처는 다음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영어로 된 영어문화권내의 정보는 인터넷과 가까운 도서관에서 90%는 얻어진다. 그것을 이용하는 데는 본인의 기억력과 추리, 그리고 판단력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책에서 "내가 만난 박정희 소장" 글을 쓸 때, 내가 본 그의 인상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기사를 5.16 혁명 후(40년 전) TIME 잡지에서 읽은 기억이 있다. 5.16 나던 해(1961년)와 그가 미국방문 하던 달(1961년 11월)은 문헌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타임지 기사를 도서관

의 Microfilm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보도를 보면 박정군 인상을 "검은 색안경을 쓰고 굳은 표정의 뻣뻣하고 자그마한 사내는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 영화에 나오는 악역배우 같다"고 평했다.

특수한 정보는 대학이나 의학도서관에서 얻어지지만, 시일이 넉넉하면 이웃 도서관을 경유해서 얼마든지 구득 가능하다.

두 번째: 동양권 또는 한자권 문화에 대해 영어정보(책 또는 인터넷)는 극히 제한되었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한국이나 일본 도서관 접근도 불가능하다. 여기서 나의 경우는 50%는 내 서재에 보관된 책에 의존하며 다행히 자료를 얻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20% 정도는 일본과 한국인터넷 등에서 얻으니 합쳐서 기껏 70%정도다.

예를 들어 이 글에서 중일전쟁시 "문물소개(文物疏講)"는 일본 책에서, 그리고 "이조실록"에 관한 내용은 "한국의 고전 시리즈"에서 인용했다.

원래 나는 글쓴다기보다는 읽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유익한 글이 있으면 장차 재탕해서 읽으려고 꼭 필요한 책이나 극히 일부의 잡지를 보관하는 습성을 불렀다. 그러기 위해선 부피가 작은 문고(文庫)나 Paperback 책을 나는 선호한다.

부자들 집에 흔히 있는 전시용의 부피 큰 책들은 질색이니, 저장에 힘들기 때문이다. 최근 글쓰는데 "나의 고궁박물관"의 일부라 할 내 서재에 엄선(嚴選)해서 보관한 2천권 미만의 값싼 책들을 이용할 기회가 많다.

서울친구(學者)를 통해 재료나 정보를 얻는 일도 있지만 몇 달에 한번정도에 불과하며, 그것도 자주 협조해줄 만한 성의 있는 친구가 드물다.

이번에 출판된 나의 제2 문화칼럼 집 "생활속의 역사탐구" 책에 얹힌 마음의 갈등 이야기, 즉 긴 방랑의 여정(Odyssey)을 적어보았다.

THE CHRISTIAN ORIGIN OF SCIENCE

Peter Hodgson <Professor, Oxford University>

이 글은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피터 핫지슨 교수가 지난 4월14일 시카고대학에서 있었던 공개 강연회 (Lumen Christi Lecture Series)에서 강연한 내용으로 동문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현대 자연과학 지식 추구에 필요한 전제로서의 신앙의 역할에 대해 노 핵물리학자의 해안을 보인 글입니다.

Viewed in the widest historical perspective, the explosive development of science in seventeenth century Europe is one of the most astonishing events in the whole of human history. It makes our civilization unlike any other. For the first time people all over the world are joined together by rapid communications, easy travel and extensive trade. Why did this understanding of the detailed structure of the world that we call science develop and come to maturity just when where it did? This is a question that can lead us to the heart of the relation between science and the Christian basis of our civilization.

It is usual to discuss the relation of science to religion as if there are two independent activities. We can then compare and contrast their objectives, their modes of procedure and the status of their conclusions. This is not without value, but it presupposes that they are two independent activities that have somehow to be related to each other. This directs attentions away from the central point that is essential for the understanding of their relationship, namely that when seen in the perspective of history there is an organic connection between them. Science as we know it is based on certain definite beliefs about the world, and these beliefs have their origin in the theology of Christian Europe.

If we look at the great civilizations of the past, in China and India, in Babylon and Egypt, in Greece and Rome, we frequently find well-developed social structures, magnificent artistic and architectural achievements, imperishable drama and philosophy, but nothing remotely equivalent to modern science. We find great skill in the working of wood and metal, ingenious mechanical contrivances and perceptive philosophical speculations about the world, but not the detailed quantitative understanding of matter, from quarks to galaxies, expressed as the solution of a few differential equations, that is the hallmark of the more developed areas of modern science.

Most of the civilizations of the past were able to provide all the material requirements for the growth of sci-

ence. There was a leisured class, technical skills and systems of writing and mathematics. Obviously this by itself is not enough. What was lacking was the attitude of mind towards the material world that is the essential precondition of science, and in some cases a social structure that allows new ideas to flourish.

What do we have to believe before we can hope to become scientist? We must believe that the world is in some sense good, so that it is worthy of careful study. We must believe that it is orderly and rational, so that what we find out one day will still be true on the next day. We must believe that this order is open to the human mind, for otherwise there would be no point in trying to find it. We must believe that this order is not a necessary order that could be found out by pure thought like the truths of mathematics, but is rather a contingent or dependent order that can only be found by making experiments.

In addition to these beliefs about the world itself, the development of science depends on moral convictions such as the obligation to freely share any knowledge that is gained. Furthermore, once it becomes clear that scientific understanding can be applied to grow more food and to cure diseases then its further development is encouraged if we believe that we should do these things to help our fellow men.

These beliefs may seem obvious to us, but in the context of human history they are very special. They are not found in the ancient civilizations, and that is why science is the modern sense never developed among them. In some cases, particularly in ancient Greece, an impressive start was made by a few individuals of genius, but they lacked the support of a coherent set of beliefs shared by the whole community, and it never became a self-sustaining enterprise.

Why were these beliefs found in Christian Europe? Is there any connection between the medieval theology that formed the mode of Europe in the critical centuries before the birth of science? In each case we find that there is indeed such a connection. In order to see that this is so

we have to look in more detail at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science.

The Origin of Science

Our present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has been attained by a long, hard and winding road from the astronomical observations of the Babylonians to the quantum theory and supercomputers of today. Initially, science was not distinguished from philosophy and its roots are to be found in the early struggles to make sense of the world. Before answers can be found, we must ask the right questions. What methods should we use to understand nature? How can we know that our answers are true? Why do things change? Is there an unchangeable reality beneath the changes that surround us? Over the centuries these questions have been answered in different ways under the influence of the surrounding culture.

It was extremely difficult to get started. The early Ionian philosophers made some tentative speculations, but the first really systematic attempt was made by Aristotle. He took all knowledge for his province and proposed a vast rational structure embracing all fields of activity from mathematics, physics and biology to politics, art and music. He as an exceptionally acute observer, and many of his biological descriptions and discoveries were not surpassed until the invention of the microscope about two millennia later.

Aristotle was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nature and with the qualitative relations among things, and not with precise quantitative analysis. He recognized that some natural phenomena such as optics and musical harmonies could be described mathematically, but he distinguished this from mechanics on the one hand and natural philosophy on the other.

Aristotle considered the world as an organism acting for a purpose. Every material body has a natural place and always moves towards that place. This may be seen most clearly in his discussion of motion, the most fundamental phenomenon that lies at the basis of physics and hence of all science. He distinguished between two types of natural motion, the circular motion characteristic of the celestial bodies, the linear motion characteristic of bodies on the earth. The celestial realm is changeless and

incorruptible and the planets must move in circular orbits because the circle is the most perfect curve. On the earth, bodies strive to reach their natural place, fire going upward and heavy bodies downwards. Their rate of all depends on their weights, and heavy bodies strive more strongly to reach their natural place; a body of a certain weight thus fall twice as fast as one of half its weight. Thus although Aristotle maintained that all knowledge come to us through the senses, he often preferred his deductions to the simplest observations. In these cases a thought experiment suffices, as according to him two equal weights joined by a light rod should fall at twice the speed of the unconnected weights.

Aristotle analyzed the concepts of space, time and motion, and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world is eternal. He also believed that time is cyclic, so that after a long time everything is repeated again and again, without end.

The Aristotelian world picture is a logically coherent structure that served as a framework for thinking for almost two thousand years. By its emphasis on purpose, a concept that has no place in physics, its over-optimistic belief that it is possible to intuit the structure of the world and its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quantitative measurement it prevented the development of genuine science. Other Greeks, notably Archimedes and Euclid, made fundamental advances in geometry and the analysis of natural phenomena, but in spite of this heroic beginning Greek science never developed into a self-sustaining enterprise.

Aristotle thought that everything can be ordered and explained by reasoning from first principles, starting from the Prime Mover. A major difficulty is to find the principles. Aristotle tried to do this on purely rational ground, but it soon became clear that in many cases introspection is not enough, and that it is first necessary to observe the phenomena, and then to try to see how it can be explained by the principles.

To sum up, he believed in the eternity of the world, in a cyclic universe, and in a world of purpose, even in material things. He also believed that celestial matter, the world of the stars and planets, is corruptible, unlike terrestrial matter

Turn to next page 15

Continued from previous page
that can under go change. These beliefs prevented the development of science for two thousand years. Their stranglehold had to be broken before science could develop into its modern form.

A new beginning, a fresh style of scientific thinking, was made possible by the Judeo-Christian vision of the world. The God of the Hebrews is very different from the God of Plato or the Prime Mover of Aristotle. According to Plato, the world is generated in accord with the eternal ideas, and Aristotle's Prime Mover is the first cause; in both cases they necessarily produced the best of all possible worlds. Furthermore, Aristotle believed that human reason can discover the constitution of the world and why it must be made as it is. In sharp contrast, the God of the Hebrews freely created a world completely distinct from himself, and His actions are inscrutable to me unless He freely chooses to reveal His plans.

The book of Genesis bears witness to the Hebrew belief in a transcendent Creator from its opening phrases: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God saw all that He had made, and indeed it was very good" (Gen 1:31). In contrast to the confused creation myths of the surrounding nations, the creation story in Genesis has a clear logical structure, expressed in poetic form. It clearly expresses belief in the absolute sovereignty, rationality and benevolence of God who bring everything into being by His command and communications His own goodness to them. Although not expressed in modern language, it contains the essential beliefs about the world that must be held if science is to flourish.

The earliest psalms tell us how God made the world and prepared it for man. He sets the heavens, the moon and the stars in their places and makes man the ruler over his works, ordering everything "in measure, number and weight" (Wis 11:20). In His reply to Job, Yahweh asks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earth's foundations?

Tell me, since you are so well-informed!

Who decided the dimensions of it, do you know?

Or who stretched the measuring line across it?"

God is all-powerful, and He alone is to be worshipped. The animist beliefs of the Egyptians and the Babylonians, the gods of the forest grove, the belief in the divine earth-mother, are all totally rejected.

Nothing comes into being, nothing

remains in being, without being loved and willed by God:

"You made all that exists; you hold nothing

of what you have made in abhorrence,

For had you hated anything you would not have formed it.

And how, had you not willed it, could a thing persist?

How be conserved if not called forth by you?" (Wis, 11:24-26)

The heroic mother of the seven martyred brothers in Maccabees likewise expressed her belief in creation when she exhorted her sons to stand firm, saying to them: "I do not know how you appeared in my womb; it was not I who endowed you with breath and life. I have not the shaping of your every part. It is the creator of the world, ordaining the process of man's birth and presiding over the origin of things, who in His mercy will most surely give you back both breath and life, seeing that you now demise your own existence for the sake of His laws". When it came to the last son, Antiochus tried to persuade him to abandon the traditions of his ancestors, and appealed to his mother to advise the young man to save his life. She finally agreed to persuade her son, but she fooled the cruel tyrant with the words: "I implore you, my child, observe heaven and earth, consider all that is in them, and acknowledge that God made them out of what did not exist, and man kind comes to being in the same way. Do not fear this executioner, but prove yourself worthy of your brothers, and make death welcome, so that in the day of mercy I may receive you back in your brothers' company".

The faithfulness of God to Israel is compared with the reliability of natural phenomena (Jer 31:35).

"Your word, O Lord, for ever
Stands firm the heaven.

Your truth lasts from age to age

Like the earth, your creator" (Ps. 118:89).

The order and stability of natural phenomena is taken for granted with the same quiet certainty as shown by the mother of the seven brothers:

God's laws are permanently valid, and endure forever:

"When God created His works in the beginning

He allotted them their portions as soon as they were made.

He determined his works for all time

from their beginnings to their distant future.

They know neither hunger nor

weariness,

And they never desert their duties.

None has jostled ever his neighbor,

They will never disobey his word" (Sir 16:24-26)/

Matter is entirely passive and it consequently endures, obedient to God's will. It is a perfect model for us. In all these accounts of creation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the heavens and the earth, between the celestial and the terrestrial realms; both are made by God and are totally subject to His laws.

Thus according to Judeo-Christian beliefs the world is the free creation of God from nothing. The structure of the world cannot therefore be deduced from first principles; we have to look at it, to make observations and experiments to find out how God made it. This reinforces the Aristotelian principle that all knowledge comes through the senses, but requires it to be situated within a wider set of beliefs concerning the nature of the world that is implicit in the doctrine of creation. Aristotle's natural theology is thus transformed into the Christian notion of divine providence: God is not simply the Prime Mover or First Cause. He is the cause of the very existence of the world and its continuance in being.

We know that the world is rational because it was made and is kept in being by a rational God. It is contingent because it depends on the Divine Fiat: God could have chosen to make the world in a different way. There is here a delicate balance between the rationality and the freedom of God: tip the balance one way to the other and you have a belief in a necessary or in a chaotic world, both inimical to the growth of science. Finally, we are assured that the enterprise is a practicable one, that the world is open to the human mind, because God charged us to have domination over it, and He does not command the impossible: 'be fruitful, multiply, fill the earth and conquer it. Be masters of the fishes of the sea, the birds of heaven and all living animals on the earth' (Gen 1:28). Whatever wisdom we acquire, we must pass on to others: 'what I have learned without self-interest, I pass on without reserve: I do not intend to hide her riches. For she is an inexhaustible treasure to men, and those acquire it win God's friendship (Wisdom 7.13).

The first study of the effect of the Hebrew theology of creation on Greek philosophy was made in the 1st century BC by Philo Judaeus of Alexandria. He accepted the Greek idea of unchangeable causality, but not the modes of causality proposed by Plato, Aristotle and the Stoics. Following Scripture, he argued that

"God did not act as Aristotle had maintained as an essentially passive first cause co-eternal with the world emanating by necessity from divine reason, that God did not make the world out of pre-existing matter as Plato proposed in the Timaeus, that God was neither material nor in the world as supposed by the Stoics, and that God is in no way necessitated, but that he had acted with entirely free omnipotence in the creating ex nihilo a world separate from himself" (Crombie, 294). He used the word logos to denote the rational pattern on which God modeled His creation, the immutable laws governing the world that show God's power within it. They are often obscure to us, but they lie behind the motions of the stars and all natural phenomena. God is the absolute Lord of the universe; He has laid down His laws but can overrule them at will.

The Early Christian Centuries

The birth of Christ further ennobled the matter of the universe, and his teaching reinforced and enhanced the teaching contained in the Old Testament. The debilitating belief in a cyclic universe, held in all ancient cultures, was decisively broken by the Christian belief in the uniqueness of the Incarnation. Henceforth history was no longer an infinite series of dreary cycles, but a linear story with a beginning and an end. Inherent in Christ's teaching is a set of beliefs about the world that eventually led to the first viable birth of science in the High Middle Ages, and to its subsequent flowering in the Renaissance.

In the early Christian centuries several philosophers examined the cosmology of creation in the context of Christian theology. In the 3rd century A.D., Lactantius rejected the Stoic belief that nature is animate and that God is within the world, and also the Epicurean belief that the world is simply that product of chance, without any providential design. He emphasized that God with infinite power created the world out of nothing, so that he is absolutely separate from His creation. Nature is designed by God ultimately for the benefit of man, and has no power of its own that does not come from God. This implies that nature is an inanimate mechanism operating according to fixed laws. In the 4th century A.D., Basil of Cappadocia insisted, contrary to Plato, Aristotle and other Greek philosophers, that nature is not animate, nor is it a living thing endowed with senses. When plants and animals grow, they do so following God's command and in accord with His laws.

Turn to next page

Continued from previous page

The Christian beliefs concerning creation emphasize not only that the universe was created by God out of nothing and in time, but that the universe is totally dependent on God and totally distinct from God. The universe at any instant is sustained in being by God, and without this sustaining power it would immediately lapse into nothingness.

At that time there were passionate debates about the nature of Christ, and heresies abounded. To define the true nature of Christ was the task of a series of Councils of the Church, and of these the Council of Nicea (325) formulated the creed that is widely held today:

'Credo in unum Deum. Patrem omnipotentem, factorem coeli et terrae, visibilium omnium et invisibilium. Et in unum Dominum Jesum Christum, Filium Dei unigenitum. Et ex Patre natum ante omnia saecula. Deum de Deo, lumen de lumine, Deum verum de Deum vero. Genitum, non factum, consubstantialem Patri: per quem omnia facta sunt...'

It is easy to recite these hallowed phrases without fully realizing their impact, and still more their importance for science. The beginning of the Nicene creed asserts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by God: 'Factorem coeli et terrae'. One of the early heresies was pantheism that failed to distinguish between God and His creation, holding that it is in some way part of God. In the Greco-Roman world the universe was thought of as an emanation from a divine principle that is not distinguished from the universe. Pantheism is explicitly excluded by the Nicene creed when it says that Christ is the only-begotten Son of God. Christ is begotten, not made. Only Christ was begotten and thus shared in the substance of God; the universe was made, not begotten. ('Et in unum Dominum Jesum Christum, Filium Dei unigenitum... Genitum, non factum'). Since pantheism was one of the beliefs preventing the rise of science in all ancient cultures, the Nicene creed prepared the way for the one viable birth of science in human history.

Many ancient cosmologies held that the world is a battleground between the spirits of good and evil. This dualism is inimical to science because it makes the world unpredictable. Dualism is excluded by the Nicene creed when it says that all creation takes place through Christ ('per quem omnia facta sunt').

In his Epistle to the Colossians, St. Paul says that in Christ all things took their being, and were all created through him and in him (Col 1.15.).

He stressed Christ as the divine logos and the consequence that the creation must be fully logical and orderly. He referred to creation out of nothing when he praises God "who restores the dead to life and calls into being those things which had not been" (Rom 4:17) and promises that through Christ they would understand "the breadth, the height and the depth" (Eph 3.18).

Inherent in the Christian doctrine of creation is the belief that God freely chose to create the universe. He was not in any way constrained either to create or not to create it in the way that He did. It is therefore not a necessary universe in the sense that it had to be created or could not have been created otherwise. There is therefore no possibility of finding out about the universe by pure thought or by a priori reasoning. We can only hope to understand it by studying it and by making experiments. Thus the Christian doctrine of creation encouraged the experimental method,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The theology of St. Augustine of Hippo (354-430) encouraged the systematic study of the natural world, since he believed that its sacramental nature is symbolic of spiritual truths. He was a compulsive observer of natural phenomena, always on the lookout for anything that gives even a fleeting glimpse of the Reason behind all things. The laws of nature are objective and inexorable, unalterable by us but not by God. He encouraged the study of nature and the search for its laws, to read the book of nature: "Look above and below, note, read, God, whom you want to discover, did not make the letters with ink; he put in front of your eyes the things that he made". Following Plato, h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mathematics, saying that the laws of nature are the laws of numbers. There is a rational pattern in nature, which follows from the unchanging laws that govern its development through time. He was interested in nature primarily because it reveals God to the attentive observer. His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the nature of time are still quoted as among the most profound ever written.

In the early sixth century John Philoponus, a Christian Platonist who lived in Alexandria, wrote extensively on the material world, showing the influence of Christian beliefs on those of the surrounding pagan world, particularly those derived from ancient Greece. He commented extensively on Aristotle, whom he greatly admired, but when the teaching of Aristotle was contrary to Christian belief he did not hesitate to differ from it. This was particularly

important in his commentary on Aristotle's physics where he said, contrary to Aristotle, that all bodies would fall in a vacuum at the same speed, irrespective of their weight, and that projectiles move through the air not due to the motion of the air but because they were initially given a certain quantity of motion. This is a remarkable anticipation of ideas normally associated with Galileo, and shows a decisive break with Aristotelian physics. He was not the first writer in antiquity to break with Aristotle, but he did so more clearly and decisively.

The connection between his rejection of Aristotelian ideas and his Christian beliefs is to be found in the doctrine of creation. Addressing the question of motion, he asked 'could not the sun, moon and the stars be not given by God, their Creator, a certain kinetic force, in the same way as heavy and light things were given their trend to move?' He also believed that the stars are not made of the ether but of ordinary matter, thus rejecting Aristotle's distinction between celestial and terrestrial matter.

This shows very clearly that the Christian beliefs about the world are incompatible with the Aristotelian views on the divinity of celestial matter and the eternity of motion. It was thus inevitable that the spread of Christianity should lead eventually to the destruction of Aristotelian physics, thus opening the way to modern science. This is not to say, however, that Christian beliefs give any specific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but the removal of obstacles is by itself no small service.

Philoponus was also the first to say that Genesis was written for spiritual and not for scientific instruction, a wise statement that was too far in advance of its time to be congenial to contemporary theologians. This theological boldness perhaps explains why Philoponus' ideas did not lead to further scientific developments. His ideas on motion are remarkably similar to those of Buridan and Oresme in the High Middle Ages, which did succeed in initiating the scientific enterprise. To be fruitful, ideas have not only to be right, but they need to fall on fertile ground, in this case a society sufficiently developed to make full use of them, and this was lacking for Philoponus. There has been some speculation about whether the ideas of Philoponus were known to Buridan, but nothing seems to be established definitely on this question.

We are now on the threshold of the decisive breakthrough that led eventually to the rise of modern science.

The High Middle Ages

Early in the twelfth century, Hugh of St. Victor saw the study of the natural world as a twofold process, first the ascent of reason to the purely spiritual and then a descent to examine in its ligh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ense. In so doing he expressed the mathematical rationalism of Plato and inspired his contemporaries William of Conches, Thierry of Chartres and Adelard of Bath, for whom reality was autonomous nature to be grasped by reason.

In the twelfth and thirteenth centuries there was a remarkable flowering of creativity in many areas of human activity. At the sociological level, this was largely due to the new concept of treating a group of people as a separate legal entity. This enabled them to act with considerable freedom, but always subject to the law. It came about as a result of what has been called the Papal revolution, by which the Church asserted its freedom from the civil authorities. Previously, it was usual for clerical appointments to be made by the civil authorities, but now the Church insisted that it alone had the authority to do this. This established the Church as a separate legal entity and put constraints on the power of the civil authorities. The most significant result was the creation of a separate legal system with its own area of jurisdiction. Once this idea was established, both Church and State became federations of many corporations, each with a measure of autonomy. Among these were cities, the first universities, the legal and medical professions, banks and business organizations and later on the scientific community itself.

In the High Middle Ages, many universities were founded by the Church to provide higher education for those educated in the monastic schools, to train future clerics and to facilitate the spread of learning. It was in these universities that the decisive breakthrough that led to the rise of modern science took place. The works of Aristotle and the other Greek philosophers were translated into Latin and were used by theologians to express the truths of the faith in more precise language, and by philosophers to refine their view of the natural world.

So great was the prestige of Aristotle that the philosophers of the medieval schools taught by commenting on his texts. Some of Aristotle's teaching, however, was inconsistent with the Christian faith, and the philosophers did not hesitate to differ from Aristotle when it seemed necessary. In 1215 the Fourth Lateran Council decreed that

Turn to next page

Continued from previous page
all creation, spiritual and material, took place out of nothing and in time. This is directly contrary to Aristotle's belief in the eternity of the world. There was intense discussion on a variety of topics, notably concerning the creation of the world and the motion of bodies. In 1277 the bishop of Paris, Etienne Tempier, found it necessary to condemn 219 philosophical propositions as contrary to the Christian belief. His main purpose was to defend God's absolute power against any attempt by the Aristotelian philosophers to set limits to it. Several of the condemned propositions set limits to God's power, saying for instance that He cannot make more than one world or to move the world so as to produce a vacuum. Tempier thus reasserted the belief that God can freely create any world, just as He chooses. This was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thought, as it liberated philosophers from bondage to Aristotle and channelled philosophical speculations about motion in a direction that led eventually to the destruction of Aristotelian physics, thus opening the way to modern science.

The theology of divine omnipotence had important consequences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s a result of Aquinas' distinction between God's absolute and ordained powers. God always has absolute power over all things, but he endows the natural world with specific natures, according to His plan for creation. These normally determine the behaviour of natural phenomena. It thus becomes a reasonable activity to try to find out about the world. Normally, by virtue of God's ordained power, the natural world strictly follows God's laws, and yet this does not prevent God from doing whatever he chooses by virtue of his absolute power. This reinforces the stability of nature as a sign of God's faithfulness so frequently expressed in the Old Testament (Jer 31:35-36; 33: 25-26), while leaving open the possibility of miracles.

One of the medieval philosophers, Jean Buridan, was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nature of motion. This is the most fundamental problem of physics, and so if science is to begin it must begin here. In full consistency with his belief in creation, he wrote that 'God, when He created the world, moved each of the celestial orbs as he pleased, and in moving them. He impressed upon them impetuses which moved them without Him having to move them any more except by the method of general influence whereby He concurs as co-agent in all things which take place'.

This reinterprets the dictum of Aristotle, who required the con-

tinuing action of the mover throughout the motion. The mover is now located within the body, and what Buridan called impetus was later refined into the concept of momentum, and his insight became Newton's first law of motion. Buridan's works were widely published and his ideas became known throughout Europe, to Leonardo da Vinci and to the scientists of Renaissance times.

The Christian belief in the creation of the world by God also undermined Aristotle's sharp distinction between celestial and terrestrial matter. Since they are both created, why should they be different? Indeed, Buridan illustrated his concept of impetus with reference to the long jump: thus implicitly presupposing that celestial and terrestrial motions are similar. This made it possible for Newton to see that the same force that pulls an apple to the ground also keeps the moon in its orbit.

Belief in the Order of Nature

A vital component in the rise of science is the belief in the order of the world, that is the idea that every event is the precise result of preceding events. This implies that whatever measurement we make should correspond exactly, that is within the uncertainties of measurement, without theories. A corollary to this is that if we want to test out theories we should make the most accurate measurements we can. This insistence on precision is essential for the progress of science. An illustration of this is the work of Kepler on the orbit of the planet Mars. Some very accurate measurements had been made of its position by Tycho Brahe, probably the most accurate that could be made before the invention of the telescope. Kepler resolved to find the orbit. He believed, following Aristotle, that the orbit was circular, as befits incorruptible celestial matter. He found that indeed it is very nearly a circle, but however hard he worked, he could not make it fit Tycho's measurements. He could find a circular orbit that agreed with the measurements to about ten minutes of arc, but not to two, which was the accuracy of the measurements. Many people would have said that this was good enough, and gone on to do something else. But it was not good enough for Kepler, who believed that the fit must be exact, within the uncertainties of the measurements. So he toiled on and on for years, until he finally realised that he could never get the circle to fit. Then he tried an ellipse, and now the orbit could be fitted. This was a breakthrough that made possible Newton's work on the planetary or-

bits, when he showed from his theory of celestial dynamics that they must indeed be ellipses.

This vital stage in the development of science was made possible by the strong belief in the order of nature. This is what led Whitehead to say, in his Lowell lectures in 1925 on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that 'the Middle Ages formed one long training of the intellect of Western Europe in the sense of order.' This by itself is not enough, and he went on: 'I do not think that I have even yet brought out the greatest contribution of medievalism to the formation of the scientific movement. I mean the inexpugnable belief that every detailed occurrence can be correlated with its antecedents in a perfectly definite manner, exemplifying general principles. Without this belief the incredible labours of scientists would be without hope. It is this instinctive conviction, vividly poised before the imagination, which is the motive power of research: that there is a secret, a secret which can be unveiled'. He went on to ask how was this conviction so vividly implanted on the European mind, and concluded: 'My explanation is that the faith in the possibility of science, generated antecedently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tific theory, is an unconscious derivative from medieval theology.' One might indeed query whether unconscious is the right word, for many of the medievals explicitly saw their work as showing forth the works of the Creator.

Science in Eastern Christendom

This explanation of the rise of science in Western Europe during the High Middle Ages as due to the beliefs concerning the material world inherent in Christian theology raises the question why it happened in Western Europe and not in Eastern Europe, where Christianity also flourishes. One might indeed have expected science to arise first in the east, because it was the heir to the wisdom of ancient Greece, preserved and to some extent developed by Arab scholars. Thus from the eighth to the fourteenth centuries mathematics, astronomy, optics, physics and medicine were far more developed in Islamic countries than in Western Europe. In one vital area, for example, Arabic astronomers had so improved the Ptolemaic system that it was mathematically equivalent to the Copernican system, although it was still geocentric. And yet the lead was lost in one area after another as the West surged ahead and Arabic science decayed. This learning came to the West not via Eastern Christendom, but mainly

through translations from the Arabic made in Spain. The Byzantine scientific tradition lacked originality, being content with the achievements of the Greeks and the Romans. They were thus unable to develop technology and to apply their theoretical knowledge for practical purposes.

Could the explan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vitality of science in the West and its virtual absence in the East be due to a difference between Eastern and Western theologies, or are there other explanations, perhaps in terms of sociological factors, which themselves may or may not have their origin in theology?

The theological beliefs of Eastern and Western Christendom are essentially the same, but there are important differences at the conceptual and practical levels. These differences are difficult to describe, because there are many counter-examples to any general statement that can be made. Thus both attach high value to reason and to prayer, but the emphasis is different. In the West, scholarly work is itself considered to be a form of prayer. Orders of friars, such as the Dominicans, were founded to preach, and to teach in schools and in universities, and their times of prayer are regulated to allow time for study. Dominicans such as Thomas Aquinas taught in the universities and used reason to find out what they could about God, thus developing scholastic theology. In the monasteries of the east, the monks spend long hours in contemplative prayer and thus attain a knowledge of God, but as a result inevitably they have less time for study and for writing.

Of great importance for the origin of science is the concept of time. Before the advent of science our activities followed biological time, governed by the natural processes of night and day, the phases of the moon and the progression of the seasons. In contrast, scientific time is a regular sequence, and to each instant there corresponds a number, measurable to high accuracy. Monasteries need to have a way of marking the time to regulate the hours of prayer and work and initially they followed biological time, supplemented by sand and water clocks. In the Western monasteries, clocks of high sophistication were developed as early as the twelfth century, whereas clocks, imported from the West, were not used on Mount Athos until the eighteenth century. Even now, the east has a more relaxed sense of time.

The use of biological time is associated with primitive technology, whereas more developed technology comes with scientific time. Thus the

Continued from previous page

larger western monasteries made many technological advances for domestic and industrial purposes, such as water mills and saws. This is of crucial importance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There are also several sociological reasons why science arose in the west and not in the east. It is essential for creative intellectual work that there are places where it can be carried on without external interference, so that the people there are free to think what they like and to follow wherever their reason leads them. Such opportunities are provided by universities, and many were founded in the West from the twelfth century onwards. The crucial steps that led to the birth of modern science took place in the university of Paris.

In the east, there was a spectacular intellectual and artistic revival in the ninth century after the end of the iconoclastic controversy, and the university of Constantinople attracted many distinguished scholars. There was, however, little interest in science or technology.

Byzantine society was rigidly authoritarian, with Church and State closely linked. The Emperor was considered the vicegerent of God, and as ruler of both church and state his word was law. There was a highly centralised state organisation with a well-developed civil service, so that practically all activities were controlled by the Emperor. Trade and commerce were rigidly controlled, not to serve the interests of the merchants but to subordinate e-

conomic life to the interests of the state. There were indeed schools, but they did not encourage independent discussion, and the static conception of life was not conduciv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In the west, on the other hand, the universities were centres of intellectual discussions, where novel views were expounded and discussed.

People speak and discuss freely when they are personally secure, when they know that they can say what they like without danger of any kind. This security can be provided by belonging to an organisation, such as a university, which encourages free discussions, or by a society that respects the right of private property. In the west this is legally established, whereas in the east property was held subject to the will of the ruler, and may at any time be revoked. If one lives in perpetual fear that the ruler will suddenly take away one's house, one is hardly likely to indulge in any activity that may incur the wrath of the ruler.

In the twelfth century the Crusaders caused consternation in Byzantium as they passed through on their way to the Holy Land, exacerbating the age-old tension between east and west. These came to a head with the sack of Constantinople in 1204. Byzantium survived another two hundred years, but was fatally weakened and finally fell to the Turks in 1453.

Such sociological factors are sufficient to explain why science did not arise in Eastern Christendom, and it seems that these are more important

than any theological differences.

An instructive example of the effect of sociological factors on intellectual activity is provided by the contrast between the English, French and Spanish colonies in north and central America on the one hand, and the Dutch colony in South Africa on the other. In America, there was from the first a thriving intellectual activity, with printing presses and newspapers, and great Colleges and universities were founded within a few decades of the arrival of the colonists. Mexico was conquered in 1521, and by 1553 had a university. In North America, the colonists arrived in 1619, and Harvard was founded in 1636. In South Africa, on the other hand, everything was controlled by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and profit was the only motive. There were no printing presses, newspapers, colleges or universities. The Church was also partly to blame for this situation, because they insisted that their ministers be trained in Holland, and were not willing to establish Colleges in South Africa.

CONCLUSION

This brief survey shows that there are many factors of importance for the rise of science: material, sociological and theological. The material conditions are found in many civilisations, and on their own are not decisive. A very special set of beliefs about the material world is necessary before science can begin, and these beliefs are provided by Christian the-

ology. For science to develop, society must encourage the freedom of thought, and this partly depends on sociological factors, which are themselves often determined by theological beliefs. In all these ways, Christian theology has proved decisive for the birth and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References

A.C.Crombie. Styles of Scientific Thinking in the European Tradition. Duckworth, 1994.
D.J.Geanakopolos. Byzantine East and Latin West. Harper Torchbooks, 1966.
E.Gilson. History of Christian Philosophy in the Middle Ages. Sheed and Ward, 1954.
T. E. Huff. The Rise of Early Modern Science, Cambridge, 1993.
S. L. Jaki. Science and Creation. Scottish Academic Press, 1974.
S. L. Jaki. The Road of Science and the Ways to God. Chicago University Press 1978.
S. L. Jaki. The Saviour of Science. Regnerey Gateway, 1988.
C. Kaiser. Creation and the History of Science. Marshall Pickering, 1991.
D.O'Connor and F.Oakley. Creation: The Impact of an Idea. Charles Scribner's, 1969.
Simone Weil. On Science, Necessity and the Love of God. Oxford, 1968. p 178.
A.N.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Cambridge, 1926.
N.Zernov. Eastern Christendom. Weidenfeld and Nicolson, 1961.

7면 <컴퓨터>서 계속

그 사람들도 프론트 데스크에선 업무용 컴퓨터는 늘상 만지지만, 요즘의 버티고선 화살표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어 나이가 좀 든 Shay 와 Elaine은 몇 번 해보다 기권하고 제자리로 돌아 가버리고, 컴퓨터 세대인 19살 박이 Dawn은 차분히 앉아 요것 조것 두들겨 맞추고 없애고 한참이나 하다가 스크린이 지시하는 대로 전원을 끄고는 마우스의 port를 바꾸어 꼽아 보도록 주문한다. 푸른색을 회색에다 회색을 푸른색에다 터무니없는 연결을 시도해 보았다. 나도 어저께 수도 없이 해본 작업이지만, 이번엔 일순간에 고놈의 화살표가 사리살살 꼬리를 치며 움직인다.젠-장 그놈의 컴퓨터 속엔 총각이 들어앉았나? 나도 개와 꼭 같은 짓을 어저 수도 없이 해 보았는데... "Hay, Dawn! It likes you."

그래서 나는 이 글을 쓴다.

順天命, 耳順하는 나이는 어느 나라에서건 모든 면에서 권위의 상징이었는데 이 컴퓨터라는 물건이 등장하여 우리 세대는 완전히 10대 어리둥절하게 나가 떨어져 하루 아침에 "컴맹"이 되어 버렸다. 어른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관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유식이라든가 하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하였다. 우리는 부모세대와 별법 기던 그 어리 시절의 설익은 권위도 -

완숙의 단계로 접어들어 보지도 못한 설익은 권위로, 다시 회복할 기회조차도 없이 무덤까지 벌벌벌 기어 가야하는 인류역사에서 가장 불쌍한 세대로 전락하고 만 셈이다. 기면서 와서 기면서 가는 소위 말해 인류역사에서 유일한 <기는 세대>로 명명 지워 지는 세대이리라. 어찌면 因果應報인지도 모른다. 지금 順天命하는 나이 이상의 살아 있는 세대 (나이 50-100)만큼 인류에 끔찍한 일을 한 세대도 없을 것이다.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고, 가장 많은 짐승을 죽였고, 가장 많은 자연을 파괴했고, 가장 많은 공해를 일구었다.

인류사에서 가장 큰 빈부차이를 형성했고, 가장 긴 인류 수명을 일구어 냈고, 그 소산으로 인류 최고의 문명을 일구었다고 자랑하던 세대들이다.

결국은 그 세대가 판 무덤에 그 세대가 들어가 눕는 꼴이 되고 만 셈이다. 지금 내가 온 정력을 다하여 컴퓨터를 배워봐야 유치원도 듣기 전부터 컴퓨터가 생활화 된 신세대를 따라 잡을 순 없다.

기껏 초등학교 졸업반 정도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면 결국은 뛰어보지 못하고 기어서 무덤에 드는 세대임에는 마찬가지이지만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못한 수 없는 나의 세대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셈이라고 자부하면서 경로회 파티에선 사회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컴퓨터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오늘날 누구나 1대씩 두고 씨름하고 있는 컴퓨터는 그 성이 남자일까 여자일까?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이에 대한 판결이 미국연방 1심 법원 법정에서 나왔다. 뉴욕타임즈 기사내용을 여기 소개한다. (The New York Times, Wednesday, November 18, 1998)

A Little Judicial Humor on the Computer's Gender

The Microsoft trial is not all fireworks by any means. There are long stretches of tedium and droning testimony on the dry technical details of computing. To lighten up, United States District Judge Thomas Penfield Jackson before the afternoon session here today, by saying that the court is on "some E-mail humor list."

He then read the computer humor entry he thought amusing.

Both women and men, it seems, were asked what gender would be most appropriate for computers.

The women the E-mail message

said, agreed that computers should be masculine for the following four reasons: ▶In order to get their attention, you have to turn them on. ▶They have a lot of data, but they are still clueless. ▶Most of the time, they are the problem. ▶As soon as you commit to one, you realize that if you waited a little longer you could have had a better model.

The men, according to the E-mail message, agreed that computers should be feminine for the following four reasons: ▶No one but the creator understands their internal logic. ▶The native language they use to communicate with other computers is incomprehensible to everyone else. ▶Even your smallest mistakes are stored in long-term memory for later retrieval. ▶As soon as you make a commitment to one, you find yourself spending half your paycheck on accessories.

재미서울대동창회 동문 소식

재미 서울대 동창회 제6대 집행부 조직(안)

SNUAA in USA (7/01/01-6/30/03)

I. 집행부 조직

명예회장: 오인석(4, 5대 회장, NY)
고문: 박윤수 (초대 회장, DC)
감수상 (2대 회장, Chicago)
이병준 (3대 회장, LA)

회장: 李龍洛(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대표 집행)
수석부회장: 오홍조(LA)
관악후원회 부회장: 송순영(Chicago)
부회장: 각 지역동창회 회장
감 사: 박영규(Chicago)
김재영(LA)

사무총장: 구경희 (회무의 총괄관장)
총무국장: 김정주 (대내외 문서 기안 및 관리)
재무국장: 김현욱 (수입, 지출 관리 및 월간 예산 집행 관리)
출판국장: 정 호 (재미동창회보 및 기타 출판물 발간사업 관장)
섭외국장: 장기남 (동창회 본부 및 지역동창회, 대외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회보편집인: 김정수 (재미 동창회보 편집기획 및 발간)

II. 업무분장

동창회의 일반 업무와 재미 동창회보(월간이며 매월 첫날을 발행일로 함)의 발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국과 그 지원 기구로 신문위원회를 두며 그 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함(2001년 6월1일자로 개정된 새 정관 24조 참조)

1. 사무국

<사무국>은 사무총장, 각 소관 국장 및 사무직원으로 구성되며, 평의회의의 의결에 따른 동창회의 제반 사업계획을 집행하며, 그 중요 업무는 집행부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수행함.

- 사무총장:

- 1) 사무국 업무집행을 총괄
- 2) 회장과 더불어 대내외 공문서의 공동서명인이 됨.

- 총무국장:

- 1) 대내외 공문서를 기안하며 발송, 수신 문서를 관리함.
- 2) 이와 관련하여 사무직원의 업무를 감독, 지휘함.

- 재무국장:

- 1) 동창회의 예, 결산서 작성
- 2) 월간 수입, 지출계획수립 및 정산 관리하며 임원회의에 보고.

- 출판국장:

- 1) 동창회보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편집인과 더불어 재미동창회보의 발행을 주관함.
- 2) 기타 출판사업을 주관함.

- 섭외국장:

- 1) 대, 내외 기관과의 연락협조
- 2) 회장의 각 지부 순방 행사 관장
- 3) 동창회의 특별사업 기획 및 추진

- 사무직원:

- 1) 사무총장 및 각 국장의 소관 업무수행에 따른 사무지원
- 2) 총무국장의 감독하에 재미 동창회 공문서 및 서류 관리

- 3) 재무국장 감독하에 수입 지출 기록부의 관리
- 4) 회보편집인의 회보발간에 따른 업무 지원

2. 신문 위원회

<신문 위원회>는 재미 동창회보의 원활한 발간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장의 자문기관으로 신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그 산하에 운영위원회, 실행 편집위원회와 논설위원회를 두어 그 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운영위원회

- **구성원:** 회장, 사무총장, 관악후원회 부회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출판국장, 시카고 지역동창회 회장(조대현) 및 차기회장(한재은), 논설위원회의장(이윤모), 편집위원회의장(정호), 회보 편집인(金正守), 부편집인(홍혜례). 광고부장, website manager,

- 소관업무:

- 가) 재미 동창회보의 발간 운영 전반에 관하여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 나) 평의회의에서 선출된 7인 출판위원회의 소관사업과 관련한 업무 지원
- 회의: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사무총장이 의장이 되고 (부재시 출판국장 대행) 출판국장이 총무가 된다.

2) 실행 편집위원회

- **구성원:** 이윤모(논설위원회 의장), 정호(출판국장), 김정수(회보편집인), 홍혜례(부편집인), 이승자, 임이섭, 이소정, 송순영, 김현욱, 김정주, 장기남, 박영규, 신석균, 육길원, 이재국, 신원태(추가 보강 계획)

- 소관업무:

- 가) 재미 동창회보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나) 실행 편집위원회는 출판위원회(평의회의에서 선출된 8인 편집위원)와 협력하여 동창회보의 발행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특별기획보도 과제 및 논설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 다) 실행 편집위원회는 월간 회보의 편집계획과 게재할 원고 및 보도기사내용을 검토하여 의결한다.
- 라) 각 편집위원은 각자의 전공분야에 따라, 전문가 및 일

반 동문들 중에서 원고집필자를 추천 선정하고 원고를 청탁함에 있어, 회보편집인의 기획안을 시행함에 있어 이를 적극 지원한다.

마) 각 편집위원은 회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크고 작은 여러 자료공급원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한다.

바) 회보편집인은 실행 편집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실행편집위원회의 의장과 상의하여 의제를 기획 발안한다.

사) 실행 편집위원회의 의장은 동창회보의 중심기사나 동창회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에 대한 논설 주제와 집필자의 선정에 관하여 논설위원회 의장과 상의한다

아) 실행 편집위원회는 재미 동창회의 집행기관인 편집위원회의 사업을 지원한다

- 회의:

- 가) 출판국장이 의장이 되며 매월 3주 또는 4주째에 정기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회의를 통하여 주요 과제를 의결한다.
- 나) 회보편집인, 부편집인이 총무 및 서기가 된다.
- 다) 회보편집인은 부정기의 통신 및 서면회의를 주관하며 실행편집위원회 의장이 이를 관장한다.

3) 논설 위원회

- **구성원:** 이윤모, 김일훈, 고병철, 이기억, 문병훈, 설상수, 감수상, 김봉현, 최일주, 서승환, 박창민, 노재욱, 강병국, 재미 동창회 8인 편집위원(방석훈, 오홍조, 이재덕, 이진구, 백순, 박경민, 소진문 및 사무총장), 정호(실행편집위원장) 및 추후 보강 계획

- 소관업무:

- 가) 논설위원회는 재미 동창회의 사업전반 및 동창회보에 게재되는 주요 기사에 따라서 제기되는 주제로 재미 동창회보의 논설을 집필한다.
- 나) 각 논설위원은 재미 동창회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

- 회의:

- 가) 필요시 의장(이윤모 논설위원)이 소집하거나, 서면 및 통신으로 논설위원회를 주재한다.
- 나) 의장은 논설위원들과 상의하여 논설 내용과 집필자를 결정한다.
- 다) 논설위원회의 총무는 실행편집위원회의 의장(논설위원회 의장 부재시 대행)이며 회보편집인은 서기가 된다.

시카고지역 동문회 하계야유회 개최

6월 23일(토요일) 11시부터 Elk Grove 소재 South Busse Forest Preserve에서 70여명의 시카고지역 동문과 그 가족들이 모인 시카고지역 동창회(회장 조대현)의 하계 야유회가 화창한 신록속에서 개최되었다. 초대회장이신 이기억선배님과 멀리 인디애나에서 동문들이 그리워 찾아온 한 동문, 시카고대학, 일리노이대학 시카고, 노스웨스턴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 동문들과 아르곤연구소에 재직중인 연구원 동문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시카고지역동창회에서 준비한 불고기류 비롯한 푸짐한 음식이, 고향의 삼촌과 같은 자상한 조대현 회장님과 동문 사모님들의 정성어린 대접으로 즐거운 식사시간이 되었고, 유학생 동문들은 이에 보답하는 뜻에서 노래로 신고식을 하였다. 음악대학 동문들이 다수 참석하여 시카고지역 음대 동문회의 조직화가 胎動되었다.

재미 동창회 본부의 이전과 더불어 시카고에서 8월부터 발간하게 된 재미 동창회보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하여 회보편집인(김정수)으로 부터 20초간의 간곡한 "글동냥"(원고청탁)이 있었고, 이산가족인 재미 동포의 북한 가족 상면기회 주선을 위한 미국무장관에 게 보내는 청원서의 서명운동(이윤모 동문)이 있었다.

내년도 야유회에도 많은 참가를 바라는 차기회장 한재은 동문으로부터 "내년도에는 더 푸짐히 대접하겠다"는 인사겸 현회장단에 대한 준비부족에 대한 성토(?)가 있었다. 참석동문들은 모두 준비된 선물을 받았고, 이어 동문과 그 가족이 참가하는 배구시합 등으로 맑은 날씨와 신선한 공기 속에 동문간의 우정을 다지는 즐거운 한 때가 되었다. <돌샘>

딸사랑
아들사랑

딸의 대학졸업식장에서 뒤돌아 본 세월

홍혜례 <사범대학 72년 입학> 동문

유아원에서 대학까지 한 동네에서 끝낸 사람도 참 드물 것이다.

1살 반짜리를 등에 달고 들어선 동네에서 토박이 미국인 보다 더 오래 살고 있는 우리는 가족에게는, 오늘이 아마도 가장 큰 사건이리라.

오늘 딸 희정이가 (金姬廷, 1979년 4월 21일생) 시카고대학을 졸업하는 날이다. 입학하던 날에도 집에서 다섯 블록 거리인 기숙사에 짐을 풀어놓고 반바지 차림으로 평소 드나들던 학생식당 건물로 들어섰다 멀리서 자녀를 데리고 정장하고 나타난 부모들의 흠뻑거림이 민망했었는데, 졸업식에도 이웃이라 방심하고 여유 부렸다가 태어나 가장 긴 줄을 서야만 했다.

딸의 신신당부에서 불구하고 졸업식 시작 30분전에 보루도 당당하게 졸업식장인 대학의 중심 교정으로 갔다. 줄이 있어 얼른 뒤에 가서 서야겠다 했는데, 웬걸 긴 줄의 끝을 찾아 4블럭 반을 걸어야만 했다. 주름치마 입은 남자들의 백과이퍼 연주에 맞추어 입장하는 딸을 놓치고서야 겨우 우리는 식장에 들어 설 수 있었다.

날씨 부조라더니, 정말 야외 졸업식으로 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였다. 시카고에서는 일년에 몇 번 손꼽을 만한 화씨 70도대의 청명한 날씨에 초여름의 신록이 우거져 졸업하는 청년들이 한없이 뻗어나갈 기운을 얻을 것 같았다.

식장에 앉아 있자니 남편과 내가 1회로 졸업했던 관악캠퍼스의 삭막하고 추웠던 2월의 졸업식장이 회상되어 감회가 깊었다. 남편은 졸업식 며칠 전부터 비디오로 찍자고 성화였지만 재봉틀리는 어린이들이 나 찍으면 귀엽지 이제 자기는 커서 어색하다고 찍지 말라는 딸의 말을 핑계로 준비하지 않은 것을 못내 아쉬워하는 남편은 소형 녹음기를 꺼내어 연신 중계방송을 하는 아나운서를 흉내내며 식장을 녹음기에 담았다.

딸의 졸업식은 특히 남편에게는 뜻깊은 것이다. 같은 교정에서 딸과 e-mail로 점심 약속을 하고 같이 내가 준비한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딸과 아버지가 함께 다닌 곳이기 때문이다. 남편은 딸에게 자신과 같은 분야, 아니 비슷한 전공을 선택해 주기를 바랐다. 딸은 아버지의 청을 거부하고 결국 경제학으로 졸업을 한다. 그리고 졸업축사를 맡은 분은 근엄한 총장님이나 유명인사가 아닌 50대 초반의 여교수 Martha C. Nussbaum이라는 시카고대학 철학과, 종교대학원 및 법과대학의 겸임 석좌교수가 하였다.

이분은 평소 남편이 우리 딸도 그분과 같이 명쾌하고 멋있는(한때 브로드웨이 연극 배우이기도 하였다는...) 학자가 되었으면 하고 틈틈이 녹음한 강의 테이프도 들려주려고 애썼던 분이다. 그 式辭 내용은 우리가 흔히 듣던 "전도양양한 젊은이들이여..."류의 상투적인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현대 복지 국가의 철학에 이르기까지 서양철학사상을 열기 방장하고 자신만만한 20대의 대학 졸업생들에게 연로한 부모님과 불우한 이웃을 배려하라는 시사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이었다. (시카고대학에서는 매년 유명한



사가 아닌 대학재제의 교수가 식사를 하는 것이 전통이다. 작년도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졸업식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겠다는 백악관의 요청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클린턴대통령은 간단한 스피치가 학생들의 조소속에서 할 수 있었다.

세월도 참 빠르다. 한 살 반짜리를 등에 매달고 오해어공항에 내려서부터 어언 스물 두 살 대학을 졸업하는 딸의 졸업식장에서 지난 일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간다.

네 살박이때 유아원 교사에게 불려가 딸 아이가 골목대장(bossy)이라고 잘 타일러 라는 말을 듣고 열받았던 일, 여자는 할 수 없다는 남자아이의 놀림에 학교 울타리 먼저 타고올라가기 시합하여 이겼다고 자랑하던 2학년짜리, 라틴 올림픽에서 라틴어 웅변(Ciceronian oration)으로 메달을 받던 일, 해럴드 워싱턴 시립도서관 연주회에서 바이올린 연주하던 일, 새벽 6시부터 연습한 수영시합장에서 목침터져라 응원하던 일,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예의바르다고 (Miss Manner)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일, 우리부부가 특히 자랑하는 우리 딸의 장점은 한국말을 영어 액센트 없이 구사하는 것인데 이로 하여 고등학교때에는 이중언어교사로 한인노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일, MCI International Scholar's Award 받았다.

하버드 대학 입학허가 대기자 명단에 있던 딸을, 장학금 더 달라는 아빠의 편지로 망쳤던 일, 캠퍼스 둘러보러 장학금을 주겠다는 뉴올리언즈소재의 대학을 보기 위해 무인지경의 고속도로를 귀청떨어져 나가는 음악을 울리며 100마일을 질주하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뒷좌석에서 잠들었던 일, 4년 등록금 전액면제의 장학금(초기 지급결정율, 외국인이라 줄 수 없다는 The University of Chicago 측의 통보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항의하여 번복시킨 우여곡절 끝에 받은)을

받았으니, 멀리 떠나고 싶어하는 딸에게 같은 동네에 살지만 기숙사에 보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보냈던 대학에서 수강과목 선택, 전공선택으로, 고전과 인문교육을 지상으로 생각하는 아빠와 벌이던 냉전과 열전들, 고대 희랍어 수강을 두 학기째에 죽은 언어를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중단하고 아빠를 실망시켰던 일 등등.

내가 생각해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 자리주어 정말 고맙고, 대견스럽다. 아빠의 기대와는 다른 길이지만, 이제 또 다른 아빠의 희망인 여성 최고 실업인이 되기 위하여 첫 출근일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남편이 틈만나면 자랑하고 복사해서 지인들에게 배포하는 딸의 일리노이 계관시인상 수상 詩 두편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딸 자랑을 마감코자 한다.

일리노이 계관시인상은 작년에 작고한 Mrs. Gwendolyn Brooks가 손수 선발, 타자하여 만든 문집에 실리고, 첫 작품은 The National Library of Poetry, 1993 문집인 "The Coming of Dawn" 실렸던 것이다.

Untitled

A little girl danced down the warm sands of

A creamy beach littered with shells.

A giggle escaped at the water's tickling and

She gathered a pearly pink shell Glossy from the waves' caress.

At a glimpse, a blemish was espied.

Abandoned by the waves, a distorted fish lay.

As she crept to acquire a better look,

A dark shadow kicked and
A corpse shattered as it pierced the air.

The shadow's snicker broke the silence and

Hit by a wave of discomfort was the tiny girl,

A dull ache deep in her heart: Sadness.

A tear kissed her cheek as she stood motionless.

Dropped to the sand below
(1992 23rd Illinois Poet Laureate Award Winning Poem, 7th Grade)

Running

For so long I've been running
Stumbling and falling
Beaten down by harsh winds,
words

Drowning in violent seas of fears,
tears

Running from salivating, fiery demons,

Greedy for my soul
Mother! Take me in your arms!

Free me from my crushing burdens,

Protect me from my ravaging demons!

I long for my paradise
To escape into peaceful slumber,
To forget everything.

Mother! I long to be the innocent babe

At peace, asleep in your arms.
Blissfully unaware.

(27th Annual Illinois Poet Laureate Awards, 1996, 11th Grade)

편집후기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와 시카고 자부심의 시험판

사람들은 각자 한가지씩 長技가 있기 마련이고, 그 나머지는 생각은 있으나 서툰 점이 많다.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일이 생긴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그저 어렵고 성공하기에는 애로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유형인즉 꿈은 크나 능력이 턱도 없이 모자라는 사람, 한가지 일이 생기면 그 일이 다 될 때까지 다른 일은 손을 놓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일리노이와 시카고가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고 오키에 공항에 내려서 南海 바다 보다 더 큰 미시간 호변에서 동산위에 뜨던 달을 쫓아 뒀을 오르고 오르는 자도 그런 사람이다.

알차고 격조 있어 기다리며 읽는 동창회보. 북미대륙의 심장부인 시카고에서 발간되어 한국의 지성인들인 재미 7천명 동문들이 구성하는 뜻있는 논단이 되고 세대간의 벽을 넘어서서 상부상조하는 우정어린 대화의 장.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여기 시카고 동문들의 고심의 일지를 기록한다

1) 뉴욕에서 개최된 9차 평의위원회에서 이용락 차기회장께서 재미동창회보 시카고판의 시험판 제작을 발안하다.

2) 2000년 11월 10일 중앙일보사와 회보 인쇄처의 계약 서명.

3) 2000년 12월 21일 녹원식당: 노신사, 부편집인과 그녀의 각축이 운전사의 遭遇

4) 2001년 2월 28일 오후 2:30 - 5:30, 차기 회장대:

이용락, 이윤모, 구경회, 이승자부부, 김정주, 신석균, 장기남, 박영규, 이재국, 김정수, 홍혜례가 모여 3시간 동안 연 70인이 토론한 끝에 "알차고 격조있어 동문들이 기다리며 읽는" 재미동창회보를 만들기로 함.

5) 2001년 4월 15일 오후 2:30-5:30, 차기 회장대:

이용락, 이윤모, 김정수, 홍혜례, 이재국 동문이 기안한 시험판제작 일정표를 검토함.

6) 운영편집위원회 5월 12일 7:00PM 부산식당:

이용락, 이승자, 이윤모, 정호, 홍혜례, 김정수 동문이 여러 동문들의 토론을 정리하고 기안한 동창회보 발간 준비 계획서를 검토함.

7) 6월 12일 6:00PM 갯마을식당:

이용락, 구경회, 박영규, 장기남, 송순영, 한재은 동문이 시험판 점검하다. Mr. Koo emerges as mnsEditor's top gun and trouble shooter

8) 6월 23일 11:00AM, Busse South Forest Grove #12: 시카고지역 동창회 야유회에서 차기편집인은 20초간의 글동냥 광고하다.

9) 6월 27일-29일:

구경회, 김정수, 홍혜례 뉴욕 인수 여행 10) 7월 5일 6:00PM 부산식당:

회장, 사무총장, 재무국장, 편집인, 부편집인이 뉴욕에서 쓰던 동창회원 및 기금 관리 소프트웨어 앞에서 茫然自失.

11) 7월 8일 2:00 정호 출판국장 댁에서 열린 첫 임원회의에서 시험판 점검. "The Great Lakes Journal"은 지역적이고 배타적인 이름인가?

전자구화(globalization)는 설익은 떡물들의 식상한 話頭이고, Konglish 콤플렉스를 가진 글쟁이들이 남의 다리에 고약 붙이는 격으로 토해낸 글들을 보게 된다.

그들은 에밀레의 애환이 깃든 이두속에 우려난 우리말, 집현전학사들의 설친 잡덕분에 태어난 세종대왕의 선물인 한글을 자동차 정비소에서 빼어 써는 중고차의 나사못같이 생경한 외국 단어에 섞어 맛없는 비빔밥을 만들어 낸다.

전자구촌잔치(global village potluck)에 내놓을 正統 한국요리 한 접시 없으면 우리는 결국 거렁뱅이이다. 진정한 ethnic chauvinism 은 무엇인가?

동창회보란 아마도 오래 못 만났던 친구의 사진을 발견하고 소재지를 확인하는 흥신소이리라.

하지만 만난 김에 그 옛날 친구 하숙방에서 眞露소주병 앞에 놓고 칩튀기며, 우겨가며 밤세워 토론하던 그 기백, 동네동네 흩어져 있던 캠퍼스 앞 흐름한 다방과 식당에서 십시일반으로 주머니 털어 같이 밥값 내고 술값 내던 그 시절처럼 각 동문들은 기억의 주머니에서 그리고 타국의 일터나 일상에서 나오는 크고 작은 생각들을 엮어 글을 써서 나누는 것이 진짜 동창회보가 아닐까?

우리의 떠나온 고향은 지금, 조기 유학병이 간난쟁이에게까지 퍼지고, 영어로 강의하는 것이 국제수준으로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북의 탈주자 동포들을 귀찮은 객식구로 보고 작은 통일비용은 아까와 하지만 평평 써대는 지각 없는 분들로 가득하다.

멀리서 보는 우리 재미 동문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 할 마당을 찾고 있지 않을까?

우리 다함께 읽을 만한 동창회보 한 번 만들어 봅시다.

"Ideas have consequences for making the SNUAAUS NEWS better."

서울대 동문 여러분께

2001년 7월 1일부터 재미 서울대 동창회의 제6대 집행부와 시카고에서 발행하게 된 재미 동창회보를 위하여, 신임회장과 임원 및 시험판 편집위원들을 미 전역과 본국에서 격려하시고 조언해 주신 여러 동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하여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마다 大成 하시기를 바랍니다.

李龍洛,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 회장

"Silence will sack the SNUAAUS NEWS editor"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내세우지 않고 도와 주셨다:

1) 과학문명의 합리성(reason) 근처에 깔릴 수 밖에 없는 비합리성(faith) 상보관계를 명쾌히 일깨우는 옥스퍼드 대학의 핵물리학자의 깨알같은 강연원고를 다시 타이핑하여 디스켓에 담아 달라는 엉뚱한 주문을 선뜻 해 준 "꿈나무",

2) 가망없는 캠퍼스를 끊임없이 일깨우는 "Beau"의 도움(허석균, 88년도 입학).

3) 난해한 binary code를 한글로 바꾸어 준 UC 사회학과의 이원재씨.

4) 주말 데이팅할 일정도 포기하고 도와준 한국의 마지막 양반(최진백, 84년도 입학).

5)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kind help, dear my e-guru, Mr. John

Kimbrough.

6) 사진에는 꼭 사람이름이 있어야 하고, 일하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동창회보를 만들기를 조언하신 소진문 편집위원님과 이승자(당시 부회장)님의 열성으로 역으신 1998년 시카고 지역동창회가 편 15주년 기념 총람 및 주소록.

7) 캄캄한 원고를 밝은 지면으로 바꾼 신원태(80년 입학) 동문들의 도움없이 이 서문자의 혼자손으로는 못 만들었으리라.

"끊이는 달 없이 매달 내는 유용한 정보의 결정체"(이윤모)를 만들기 위한 이 작고도 큰 과제를 연습하는 이 시험판도 이 서문자의 손으로는 꿈도 못 꾸었을 것이다.

이 시험판이, Deus Abscond의 지혜와 여러 편집위원들의 정성어린 성원에도 불구하고 이 회보 편집인의 능력부족으로 밖에 안된 것을 동문들께서는 惠諒하소서.

<돌샘>

동창회보 편집위원들

李龍洛	具琛會
朴泳奎	丁浩
梁基南	李允模
韓在殷	洪惠禮
金賢玉	金正守
申昔均	申源泰
송순영	이승자
김정주	조대현
	李在國

金正璜동문(문리대 61년도 입학) 별세

지난 6월 15일 김정기 동문이 근무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얻은 풍토병으로 2여년간 투병 끝에 순직하였다.

김정기 동문은 문리과대학 外交學科를 61년도 입학하였고 외무부 아주국장, 주시카고 총영사, 주미 공사 및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역임하였고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중견 외교관으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던 분이였다.

김 동문의 별세에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돌샘)

동창회 본부와 각 지역동창회와의 전산망 설치를 위한 설문서 (#1)

동창회 본부와 각 지역 동창회와의 신속한 전산망을 구축하여 통신의 신속원활을 기하고, 동창회보 기사 취재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주택, 직장, Hand Phone)

e-mail :

Fax :

<지역동창회 총무님> (또는 지역동창회보 간행물 담당동문)

성명 :

주소 :

e-mail :

Fax :

- 아래 -

_____ 지역 동창회

<지역 회장님>

성명(한글, 한문, 영문)/전공학과

주소: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동문독자 여론조사 설문서(#2)

이번 8월부터 이곳 시카고에서 발간할,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문으로 독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잠깐 시간을 내셔서 설문에 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I) 동창회보가 각 분야에 종사하시는 동창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쓰는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면, 어떤 분야의 주제가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야를 쓰셔도 좋고 가능한 자세하게 기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I) 동창회보를 우편으로 받으신 후 (택일)

- 1) 그냥 받아두고 잘 읽지 않는다()
- 2) 눈으로 일별하고 밀쳐둔다()
- 3) 흥미있는 기사가 있으면 즉시 읽어본다()
- 4) 시간상 당장 읽지 않더라도 보관했다가 꼭 다시 찾아 읽는다()
- 5) 시간 나는대로 게재내용을 거의 다 읽는다.()

II) 동창회보를 읽으시는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분 ()시간 정도

III) 어떤 내용의 기사를 유심히 읽어보십니까 (여러 항목에 표하여도 됩니다)

- 1) 동창회 사업계획 보도기사나 공지사항()
- 2) 본국 동창들의 동정, 소식()
- 3) 미국 내 동창들의 개인/지부 활동소식(소속지역)()
- 4) 타지역 동창회 소식()
- 5) 동문들이 투고한 기사 및 column()

IV) 일반 신문잡지에서 어떤 분야들에 관한 기사를 관심있게 읽으십니까?

V) 지금까지 받으신 동창회보의 내용 구성에 대하여 (택일)

- 1) 만족한다()
- 2) 좀 부실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 3)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4) 내용이 실망적이어서 읽을 흥미가 없었다()

1)

2)

VII) 현재 기획중인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분석 기사를 동창회보에 게재하는 데에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십시오

- 1) 남북한 관계와 통일에 관한 국제 정세()
- 2) 한국교육문제에 장래와 서울대학교의 역할()
- 3) 기타 자연과학, 기술분야에 대한 읽고 싶으신 주제에 대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VIII) 동창회보 편집위원회에서 집필의뢰를 하면 응하시겠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어째서 그러십니까? ()

IX) 미주동창회에서 동창회를 빛내는 업적을 성취하신 동문을 초청하여 지역을 순회하는 강연회를 개최하는(Distinguished Alumni Lecturership)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X)내용있고 수준있는 동창회보를 만들기 위하여 동문 개개인들이 크고 작은 소식이나 의견을 수시로 보내주시면 알찬 동창회보 발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기타 충고의 말씀이 있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작성 동문>

성명 :

주소 :

전화:

e-mail:

Fax :

의견란